[UCI]I804:24011-200000236266

*2008*년 *2*월
국어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전(傳)’문학의 교육 방향과 교육적 가치

- 이옥·김려 ‘전(傳)’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은 선

‘전(傳)’문학의 교육 방향과 교육적 가치

- 이옥·김려 ‘전(傳)’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al Directions and Values of 'Jeon' Literature

- Centering on 'Jeon' by Lee Ok and Kim Ryeo -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은 선

‘전(傳)’문학의
교육 방향과 교육적 가치

- 이옥·김려 ‘전(傳)’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수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은 선

김은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 방법 및 범위 12

Ⅱ. 고전소설 교육의 이론적 접근 14

1. 조선후기의 문학적 배경 14

2. ‘전’문학을 통한 사회상 해석의 의미 20

3. 이옥・김려의 생애 및 ‘문체반정’과 ‘비어옥사’ 24

Ⅲ. ‘전’문학 교육의 문제 및 방향 29

1. 고전소설 수록 양상 및 ‘전’의 단원구성 현황 29

2. 현행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 38

3. 제재 수록의 확충과 보완 43

Ⅳ. 이옥・김려 ‘전’문학의 교육적 가치 49

1.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 50

2. 시대를 보는 공시적 안목 58

3. 자아실현과 전문인 의식 67

Ⅴ. 결론 75

□ 참고문헌 78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Directions and Values
of 'Jeon' Literature
- Centering on 'Jeon' by Lee Ok and Kim Ryeo -

Eun-sun Kim
Advisor : prof. Soo-중 Kim.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ducational value of 'Jeon' literature of Jeoseon period which describe social and human aspects of the time. It points to limits of the novels that have been used as current educational materials of ancient novels and presents novels with various viewpoints on that time to help learners to have experiences in various aspects.

As mentioned above, in the late Jeoseon period, a status system collapsed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active operation of petty officials and the common people brought the class of literature to be expanded. The gentry who was previously in charge of literature began to be interested in life of men in the street and reflected them in literature. So, painters, poor people, musicians, interpreters, street knights, medical officers, beggars, wives of charcoal dealers, and swindlers who showed new literary value were introduced as materials of literature.

Park Ji-Won is a representative writer at that time. 18 kinds of literary textbooks including a national Korean textbook tend to publish novels by a specific writer named Park Ji-Won. As creation of 'Jeon' literature in late Joseon Period was developed by many writers in addition to Park Ji-Won, it is thought that we need active acceptance and reflection on other 'Jeon'

writers at that time. This study speculates novels by Lee Ok and Kim Ryeo based on 'Jeon' literature to expand the educational foundation of ancient nove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pter 2 focuses on liberal characteristics of 'Jeon' literature for teaching and learning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ater Joseon period through novels.

Second, chapter 3 analyses aspects of publishing ancient novels in literary textbooks in the 7th Curriculum, status of decision on unit lessons of each textbook, and relations with content system in curriculum to point to the problems of biased collection of novels written only by a single writer named Park Ji-Won.

Finally,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compare the novels by Lee Ok and Kim Ryeo with those by Park Ji-Won which are published in textbooks as the former's novels are extensively being recognized in educational circles because of a process of internalization obtained by providing diversified experiences for learners. Then, we identify their succession and development, necessity of novels by Lee Ok and Kim Ryeo to be published in textbooks, their educational effects as follows:

First, as subjects to be introduced to a genre of 'Jeon' increases due to 'Jeon' by two writers, learners can have better understanding on diversified life. In respect to the introduction ceremony, the two different groups show distinctive difference. Lee Ok and Kim Ryeo recognized and pursued positive and characteristics life styles and social views. Through human instincts or psychological conflicts various characters show, learners can form chemistry with others, consider them and have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their directions to harmonize with others.

Second, through views on reality of the two groups, learners can enhance their sense to understand history. Though novels by Park Ji-Won described different themes in changed historical background of that time, they could not escape from consciousness of the gentry. However, Lee Ok and Kim Ryeo

provided meaning for space of the street and recognized values of the characters in it with warm heart. When learners read novels by both the two groups equally, they can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society, and have balanced and gentle viewpoints on reality.

Third, the novels which deal with professionals help learners develop right concepts on people and enhance their mind on job and summons through self-realization. They evaluate self-esteem and confidence of professionals presented through the viewpoints of Lee Ok and Kim Ryeo and use them for models of their sound self-realization to identify the meaning of professionalism. Further, they can induce positive actions to achiev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Jeon' literature by Lee Ok and Kim Ryeo helps learners have interests in novels and obtain lessons, and can expand an educational frame by contributing to achievement of ultimate educational goals of ancient novels.

Ⅰ. 서론

1. 연구 목적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이라는 객체적 대상을 매개체로 하여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생에게 그 내용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고전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학습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고전문학을 교육하게 된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이르러 학생들은 고전문학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유독 고전소설의 경우 여전히 어휘부터 학생들의 학습에 부담을 주는 장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한 학습자 경험의 확대에 대한 중시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제재 선정상의 기준에 얽매여 문학사적으로 보편화된 즉,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작품들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1)]에서 고전소설 작품이 다루어지는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고전소설[2)]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문학 교과서가 제재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 고전소설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특성을 국문학계에서 이미 충분히 주목 받아온 이옥・김려의 '전(傳)'문학을 박지원 '전'문학의 기존 다수의 연구

---

1) 제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는 2003년 1차로 11종이, 2004년 2차로 7종이 출판되었다. 1차는 상문연구사, 교학사(구인환 외), 케이스, 디딤돌, 민중서림, 금성출판사,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블랙박스, 문원각, 천재교육에서, 2차는 지학사(2종: 권영민 외, 박갑수 외), 태성, 교학사(김대행 외), 형설출판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청문각에서 출판하였다.

2) 성현경, 『한국옛소설론』,(새문사, 1998),p.22.
" 오늘날 이 '고소설'이란 용어 못잖게 애용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고전 소설'이란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고전 소설과 고소설이라고 하는 두 개념들은 실상 꼭 같은 것이 아니다. 고전 소설이라고 하면 고소설들 가운데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아직도 그 생명력이 있는 작품을 뜻하는 바, 그 수용 범위가 고소설의 그것보다는 얼마간 더 좁아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제재는 모두 고전소설이라 불러도 무방한 것이다. 교육 제재로써 갖는 목표를 지향해야하는 제한성으로 미루어 '고전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교육적 가치를 정선의 기준으로 하는 바에 초점을 두어 좀 더 협의의 범위로 설정하고 이와 같이 '고전소설'로 표기한다.

들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교과서 수록의 필요성을 밝힘으로써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찰하게 될 '전'문학은 조선후기 17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말까지의 시기에 성립, 발전하였다. '전'문학은 역사의 서술에서 나온 양식으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열전(列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은 이와 같이 개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학 양식으로 한 인물의 생애가 주는 극적인 감동이 작가의 구성과 표현에 의해 형상화할 수 있는 면에서 역사 기술에서 문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고려 때의 가전체(假傳體)에서 보이듯 지속적인 전통을 보여준 '전'은 조선후기 양난의 역사 변동을 경험했던 문인들에 의해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자아의 현실의식을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 수록된다.[3] 이 시기는 임진(壬辰)·병자(丙子)의 양란을 계기로 조선조 봉건 사회의 해체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지배 계층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정치계의 혼란과 임·병 양란으로 지배 계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농업의 발달, 상공업의 발달로 축척된 자본, 의식의 각성 등 피지배 계층인 서민층의 성장으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계층 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계층 내부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 양반층 내에서 소수의 집권 사대부 계층과 다수의 몰락 사대부 계층으로 분화가 심화되고, 평민층에서도 경제력으로 인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에 평민층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향유를 꾀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의 사상과 학문으로써 공상탁론을 일삼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새로운 실학풍이 일어났다. 실학은 성리학의 내면적 비판을 중심으로 종래의 사회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 중 북학파(北學派)는 청나라를 통한 서양 문물의 도입과 청문화의 유입에 영향 받아 민생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하였다. 이들을 소위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로, 이 이용후생파의 대가(大家)이던 연암 박지원은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당시 북학파의 사상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 '전'문학의 성행과 그 성격은 당대의 역사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인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평민층의 성장과 실학사상의 대두, 서구문물의 도입 등의 사회 제반

3)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p.154.

적 변동은 기존의 양반층 문화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이 당대의 세계관이나 인간관,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동 시대의 다양한 관점의 작품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선후기 고전소설 교육의 제재로써 박지원의 작품을, 제1차～제7차에 이르는 교육 과정기를 걸친 문학 교육의 목표와 성격의 지향성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수의 문학 교과서에서 중복하여 수록하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할 제7차 교육과정에 선정된 검인증 2종 문학 교과서 역시, <광문자전(廣文者傳)>이나,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등 기존에 실리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을 싣고 있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박지원이라는 한 작가의 작품인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후기 고전소설의 창작은 비단 박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문인들에 의해 성행되었다. 박지원 작품은 당대의 추세 속에서 산출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전'문학 변동기의 단초로 그 후 다수의 작가들이 배출한 작품들에서 그 양태가 계승・발전되는 것을 기존의 여러 국문학계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고전소설 교육에서 박지원 작품 이외의 훌륭한 작품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이 시대의 다른 고전소설 작가들에 대한 활발한 수용과 반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후기 문학적 동향을 살펴본 바, 하층 또는 중인층 그리고 일사들의 인물전(人物傳)이 성행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항간에 유포된 내용들이 많이 근거하게 됨으로써 야담집(野談集)소재 한문단편과 그 내용을 함께 하게 되는[4] '전'양식 중 국문학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실학파들의 전과 패사소품체(稗史小品體)로 인식된 이옥, 김려 등의 '전'이었다.[5] 이들은 박지원 '전'과 동류에 속하면서 '전'을 입전하는 의식이 사회적 반영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시정(市井)의 인물들을 입전시킴으로써 궁극적 주요 인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존재 가치를 강조하였다.

본고는 이옥・김려의 작품 중 '전'문학에 주목하여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제재

4) 이혜순, 『한국문학강의』, 서울: 길벗, 1994. p.152.
5) 이상덕, 「이옥 '전'의 양식적 변개양상에 관한 소고」,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p.13.

로서의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32편[6]이나 되는 많은 '전'을 남겼는데, 작품 수나 등장인물과 사건의 다양함에서 박지원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박지원은 한정된 소재를 두고 체제 내에서 중심을 향한 항거(抗拒)의 내용을 주로 구사하는데 핵심을 두었다면, 이옥·김려는 여항(閭巷)의 이야기나 설화·야담을 수용하여 기이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재로 취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된 시각으로 세태를 반영함으로써 조선후기 '전'문학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아울러 소설적 경향이 짙은 작품까지 창작하여 그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한 바가 크다.

2. 연구사 검토

이미 일찍부터 박지원의 소위 구전(九傳)은 한문소설로서 높이 평가되고 활발하게 연구[7]되어 '전'양식의 작품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그 연구의 동향이 편중되어 여타의 작가들이 창작한 많은 '전'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박지원보다 20여년 뒤 세대인 이옥·김려의 '전'작품들이 소개, 연구되면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옥의 '전'은 이가원이 『이조한문소설선(李朝漢文小說選)』[8]에서 당시까지 알려진 23편 중 15편을 번역 수록함으로써 이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후 본격적인 연구는 김균태[9]가 이옥의 가계(家系)와 생애(生涯)를 밝혀내고 사상과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담정총서(薄庭叢書)』와 『담정유고(薄庭遺藁)』에 실려 있는 작품에 대입하여 이옥의 현실의식과 민족 주체성에 대해 규명하였다. 그 후 이옥의 한시에도 관심을 부각시켜[10] 작가의식, 시(詩)·사부(詞賦), 산문 문학론 등 이옥 문학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언급하여 이옥 문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옥은 부(賦)·서(書)·서(序)·발(跋)·기(記)·논(論)·설(說)·해(解)·변(辨)·책(策)·문여(文餘)·전(傳)·이언(俚諺)·희곡(戱曲)으로 방대한 장르에 걸쳐 여러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 '전'문학과 『이언(俚諺)』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

6) 이옥 23편, 김려 9편으로 모두 김려의『담정유고』와『담정총서』에 실려 있다.
7) 본고에서 다루게 될 박지원의 소설들에 대한 연구는 그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므로 기존의 연구들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8) 이가원,『이조한문소설선』, 서울: 민중서관, 1961.
9) 김균태,「이옥연구-작품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7.
10) 김균태,「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사부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전체적인 이옥 문학에 대한 연구를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본다면, '전'문학에 대한 연구[11], 시나 사부 등 운문 문학에 관한 연구[12], 희곡 <동상기(東廂記)>에 대한 연구[13] 등이 있다. 이 중 '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데, '전'문학에 대한 연구를 세분해 본다면, 전반적 '전'연구를 통한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명한 연구로 거시적인 입장으로, 전체적 작품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 인식과 작가 의식을 고찰한 연구[14] 이옥의 '전'에 수용된 설화·야담에 관심을 두고 그 장르간의 교류와 수용 양상을 살핀 연구[15], 이옥 '전'의 양식의 특질과 서사구조의 내용 및 특징에 관한 연구[16], 이옥의 '전'을 소설로 인식하여 그 구조를

---

11) 김균태, 위의 논문, 1997.
김균태, 위의 논문,1985.
김상렬,「이옥의 '전'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홍우,「이옥의 '전'문학 연구-설화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정경,「이옥의 '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3.
김용봉,「이옥의 '전'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동판,「이옥의 '전'문학 연구」, 계명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이은애,「이옥의『이언』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0.
정은선,「이옥의 시문학 연구-그의 시작품과 시론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현우,「이옥『이언』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4.
류재일,「≪이언인≫에 반영된 이옥의 시이론 연구-『이언』작품과의 상응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16, 청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 1996.
정 훈,「이옥 부의 기법적 특성과 주제구현양상」, 한국사상과문화 제25집, 2004.
박정은,「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시정성」,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김어진,「이옥의 시사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윤현숙,「이옥 시사극의 주제와 의의」, 충추대학논문집 제35집, 2000.
「이옥 시사극의 인물 형상」, 충추대학논문집 제36집, 2001.
「이옥 시사극의 언어예술」, 충주대학논문집 제40집 2호, 2005.

14) 민경대,「이옥의 '전'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991.
김영주,「이옥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변모와 의미」, 경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문무자 이옥의 의식기저와 현실인식 태도」, 동방한문학회,1996.
이성휘,「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품의식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2.
배한렬,「이옥의 '전'에 대한 연구-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영남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류경옥,「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금오공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민경,「이옥 '전'의 작가의식 연구」, 충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임유경,「이옥의 '전'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박준원,「조선후기 '전'의 사실수용양상-연암·문무자·담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1989.
이동근,「이옥'전'의 야담수용 양상에 대하여」, 3군 사관학교, 1991.
이홍우,「이옥의 '전'문학 연구-설화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3.
허종진,「이옥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수용 연구」, 부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진,「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제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이옥 문학과 명청 소품 - 신 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제23집, 2003.

16) 김춘복,「이옥소설연구-구조분석을 중심으로-」,경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3.

고찰하여 소설로서의 변용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17]등이 있다.

또한, 개별적 작품의 가치를 연구한 미시적인 입장으로는, 각 작품에 나타난 열녀의식에 대한 연구[18], <심생전(沈生傳)>을 중심으로 한 진정(眞情)과 남녀 애정관에 대한 연구[19], 주제와 대상에 나타나는 풍자양상을 살펴본 연구[20]를 들 수 있고, '패사소품체'로서의 문체적 특성을 살핀 텍스트적 입장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문체적 특질에 관한 연구[21], 비평부(批評府)의 특징에 관한 연구[22] 등이 있다.

김상렬,「이옥의 '전'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6.
이상덕,「이옥 '전'의 양식적 변개양상에 대한 소고」,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전수연,「<심생전>의 양식적 특성」, 이화어문논집 이화여대한국어문학연구소, 1987.
김용봉,「이옥의 '전'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8.
임정현,「이옥 '전'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정선희,「이옥의 '전'의 양식적 특성과 서사성 연구」, 울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7) 김충복,「이옥의 소설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안재수,「이옥의 한문소설 연구」, 강원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최승순,「이옥의 한문소설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0.
박훈기,「이옥의 심생전 연구」,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정진,「'전'의 서술양식과 소설로의 변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3.
옥치곤·김정호,「이옥의 한문소설 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38, 1999.
이현우,「이옥 소품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안대희,「이옥 소품문.2」, 현대시학 제35권 현대시학회, 2003.
박현숙,「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18) 정미숙,「이옥의 여성전에 나타난 입전의식」, 부산교육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대형.「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조영신,「이옥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박은정,「이옥 열녀전의 열 관념에 대한 소고」, 한단대학교부설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제10호, 2004.

19) 이지양,「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절'의 문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제29집, 2002.
신희경,「<신생전>연구」, 돈암어문학회 돈암어문학 제15집, 2002.

20) 박성훈,「이옥의 '전'에 나타난 풍자연구-주제와 대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4.
이신복,「'전'을 통한 사회상의 반영-이옥의 <이홍전>의 경우-」,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1992.
정병호,「<심생전>에서의 신분의 문제」,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1992.
안대회,「이옥의 '전'에 나타난 노인과 늙음의 의미」, 동의대학교인문학연구소, 인문연구논집 제8집, 2003.
권순긍,「이옥 '전'의 시정세태 묘사와 풍자」,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2004.
송병렬,「이옥의 의인체 산문 일고찰」, 한문학보 제13집, 2005.

21) 정병호,「<심생전>의 서술방식과 의미지향」, 문화전통논집1, 경성대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93.
임유경,「이옥의 <차최이의사전>의 구성과 문체상의 특징」, 한국전통문화연구 12, 대교효성가톨릭대학교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7.
안세현,「이옥의 사유방식과 산문의 문체적 특성」, 3군 사관학교, 2004.

22) 김진균,「이옥의 작가적 자세와 탈중심적 글쓰기」, 한문학보 제6집, 2002. pp. 175~203.
임유경,「이옥의 <차최이의사전>의 구성과 문체상의 특징」,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1997.
김동석,「이옥의《매화외사》의 비평과 그 서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제47집, 2006. pp.65~90.

김려에 대한 연구 역시, 이가원[23]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가원은 <황성리곡(黃城俚曲)>과<사유악부(思牖樂府)>를 소개하며 김려를 악부(樂府)의 대가로 평가하고, 「단량패사(丹良稗史)」의 일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후 이옥의 작품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 김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24] 본격적인 김려에 대한 연구는 임종대[25]에서 김려의 유고집『담정유고』를 폭넓게 다루면서 김려의 생애를 고찰하는 것으로 제기된다. 그는 김려의 생애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른 작가의식과 작품세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단량패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을 (1)과학정신의 고취, (2)자아의식의 실현, (3)신선사상의 경도(傾倒)로 규정하였다. 임종대의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다루어서 심층적인 분석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으나 김려 연구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임종대의 개괄적인 연구 이후, 연구자들은 김려의 작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하나는 김려의 한시(漢詩)와 사유악부(思牖樂府)에 대한 연구[26]이고, 다른 하나는 김려의 '전'문학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전'문학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수[27]는 「단량패사」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를 생애와 연관시켜 유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였다. 이경수는 여기에서 「단량패사」를 처세(處世)의 여러 유형을 담고 있다고 보고, 이것은 정치의 비극적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김려의 가계(家系)와 생애에서 겪은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명관[28]은 김려의 생애와 관련하여 교우(交友), 저작(著作)과 비어옥사(蜚語獄事), 문체반정(文體反正)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후기 소위 패사소품체를 옹호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안세현,「이옥의 사유양식과 산문의 문체적 특성」,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제59집, 2004.

23) 이가원,『한국한문학사』,민중서관, 1973.

24) 이우성· 임형택, 김균태, 임유경, 김영진. 앞의 논문들.

25) 임종대,「담정 김려 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6) 박준원,「담정 김려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4.
김경미,「담정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5.
이신복,「담정 김려 한시 연구」, 단국대 동양학18집, 1988.
박혜숙,「사유악부연구」, 고전문학연구6집, 1991.
조영식,「담정 김려의 사상과 작가의식」, 안동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한문교육), 1991.
허준구,「김려의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2.
「담정 김려의 사유악부 연구(1)」, 죽부이지형교수정년퇴임직기념논문집, 1996.
「담정 김려의 시세계-그 생애역정에 따른 시경향-」,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류수연,「김려의《사유악부》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4.

27) 이경수,「김려의 생애와《단량패사》의 문학적 성격」, 국어국문학92호, 1984.

28) 강명관,「담정 김려 연구(1)」, 부산대학교 사대논문9집, 1984.

이 두 사건의 핵심적인 피해 인물로써 이옥과 더불어 김려를 다루고 있으며, 그 사건을 통해 김려 생애의 전환과 추후 문학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정병호[29]의 연구에서는 '김려의 전연구'라는 표제를 붙이고 담정 김려의 구전(九傳)을 서사방식과 작가의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식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냈다. 정병호는 김려의 '전'문학은 '전'으로서의 양식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적 변모를 꾀하여 종래의 '전'에서 진일보한 서사기법을 보이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량패사」의 야사(野史) 수용적 성격을 검토한 연구로는 허준구[30]가 대표적이다. 허준구는『우초신지(虞初新志)』와『우초속지(虞初續志)』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김려의 대청의식(大淸意識)과「단량패사」의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식을 규명하였다. 또한 허준구는「김려의 문학관 연구」[31]에서 김려의 시론(詩論)과 문론(文論)을 양분하여 문학관에 대한 규명함을 동시에 문학관에 있어서 밀접한 교유와 영향관계를 가졌던 이옥과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동안 문학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와 구체적인 검증이나 비판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먼저 문학 교육을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가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문학 교육의 위상을 규명하려는 연구[32]와, 구체적인 방법론과 방향을 모색하려는 탐구[33]가 주류를 이루었다.

---

29) 정병호,「김려의 '전'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8.

30) 허준구,「《단량패사》의 야사적 성격과 그 의미」, 태동고전연구14집, 1997.
「<한고관외사제후> 분석을 통해본 김려의 야사적 편찬과 인식」, 강원대사범대학 국어국문학논총, 1997.

31) 허준구, 「김려의 문학관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제124회, 1998.

32) 이현복,「국어교육학 정립을 위한 서설 -국어교재의 문학교육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인천교대, 1980.
이용주,「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의 위치」,『박중배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배영사, 1986.
한주섭,「한국 문학 교육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87.
구인한 외,『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우한용 외,『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김승호,『고전의 문학 교육적 이해』, 이회, 2000.
허왕욱,『고전문학 교육론』, 보고사, 2003.

33) 조문제,「고등학교 국어과(고전)학습지도안(Ⅱ)」, 교육 제6호, 서울사대, 1957.
김남숙,「바람직한 고전지도의 방법」,『배달말 가르침 제1집』, 경상대, 1977.
최순열,「문학교육론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7.
김연수,「고등학교 문학교육에 있어서 구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2.
경규진,「반응중심의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류덕제,「소설텍스트의 교육 방법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김동환,「춘향전의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1998.

최근에 와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34] 이는 고전문학 교육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여 그 질을 고양시키고 있다.

또한, 미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 제재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이 이루어져 왔다.

최현섭[35]은 조선시대 및 개화기의 소설관과 일제강점기의 교과서에 실린 소설 제재에서 제4차 교육 과정기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까지 대상으로 국어과 교육 방향과 수록 제재 및 수록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설 교육사의 통시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교과서의 소설 제재를 자료로 한 사적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김혜경[36]은 제1차에서 제5차 교육 과정기의 고전소설 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과서 수록 양상, 학습 결과의 평가 방식을 사적(史的)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수록 작품의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은 문학 교육의 변화를 조감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에 있어서 고전소설 제재 이외도 다루고 있어 그 범위적인 명확성이 결여되었다.

이인빈[37]은 제5차 교육 과정기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을 수록 작품, 수록 양태를 분석하고 고전소설을 소설에 관한 관점에서 동 교육 과정기에 수록된 현대 소설과 비교하였고, 유영순[38]은 교수 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 과정기까지 수록된 고전소설 제재의 변천에 대해 살핀 후, 제5차 교육 과정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다섯 편의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수록 방식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두 연구는 제5차 교육 과정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현행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고찰이 적합하지 못하다.

장성란[39]은 제6차 교육 과정에서 고전소설이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고,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제재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된 고전소설의 문항을 분석하여

---

34)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문흥구, 『한국고전산문교육론』, 보고사, 1999.
서유경, 『고전소설교육탐구』, 박이정, 2002.
김수종, 「고전소설 교육에서 예측하며 읽기」,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2.

35) 최현섭, 「소설 교육의 사적 고찰 - 국어과 교과서의 소설 교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36) 김혜경,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37) 이인빈, 「문학 교과서의 고전소설 교재 분석」,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2.

38) 유영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고대 소설의 적정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39) 장성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7.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의 실제를 파악하였다. 고전소설을 필독서로 선정하는 방안이라든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방안, 교사용 지도서의 보급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안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미진[40]은 제6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 제재가 고전소설 교육 목표에의 도달 여부를 따져 선정과 조직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향후 교재 편제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 시대, 유형의 편중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조선후기로 편중된 제재의 수록 양상을 감안하지 못하고 부분 수록의 문제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작품 전체를 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조장희[41]는 교육 과정별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제6차 교육 과정에서의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여 제7차 교육 과정 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교과서의 수록 제재인 고전소설의 갈래적 분류를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국정 교과서의 단권화가 아닌 분책이나 합본이 가능하도록 제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제나 유형, 시대에 편중됨이 없이 제재를 선정하는데 부교재의 제작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교과서나 부교재와 같은 도구적인 요소들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수에 관한 문제, 교사의 노력, 학습자의 호응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신보영[42]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교육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태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고등학교에서 시행 될 고전소설 교육의 위상을 살피고, 문학교과서 내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며, 현장에서의 교육의 실제에 접근해 봄으로써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동일 작품 수록의 중복을 피하고 필독서로 지정하며, 단원과의 긴밀성 보완, 시대구분의 통일성을 들었다. 그러나 원론적인 개선 방안에 그쳐 구체적인 고전소설 교육의 활동 방안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수영[43]은 제7차 문학과 교육과정과 문학 교과서 편찬 지침의 특징을 살피고

---

40) 이미진, 「고전소설 수록 양상의 적정성 분석과 바람직한 교재화 방안」,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1) 조장희,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고소설 제재에 관한 연구」, 서강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2) 신보영, 「고등학교 고소설 교육 연구-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을 갈래와 갈래에 따른 대표 작품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하여 현재 고전문학 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문학 교과서의 구성 체제, 대단원 구성 체제,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활동을 비교 검토하여 현재 고전문학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상적인 문학 교과서 개발 방안과 그 실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학 교과서 수록 체계를 분석하는 데 일반적인 개발 방안만 제시하여 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김광은[44]은 18종 문학 교과서를 통한 고전소설 지도 내용의 적절성을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후 현 고등학교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지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전(朴氏傳)>, <유충렬전(劉忠烈傳)>, <호질(虎叱)>로 비슷한 시기의 문학 작품만 다루는데 한계를 갖는다.

양승만[45]은 학급 인원수의 과다한 편성,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 등 주·객관적인 장애로 인한 교육현장 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고전문학교육의 연구 방향으로 보고, 교과서 제재 선정의 문제, 수업 방식의 문제, 학습 수용자 태도의 문제, 교육과정상의 문제, 평가의 문제를 설문 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현장론적인 입장에서 그 방안이 고전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선상에서와 교사의 역할의 변화에 있음 <구운몽(九雲夢)>의 실제 교수·학습 결과를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태 파악에 치우치는 경향으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흡하고, 학습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상정하려 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기존의 주입과 수용의 관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

백녹희[46]는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교수 요목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고전소설 교육을 검토하고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학습목표, 제재 선정, 장르론적 연속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에 모든 갈래별, 시대별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

43) 이수영,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신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4) 김광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45) 양승만,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6) 백녹희,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단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작품을 전체 실을 수 없다는 분량면의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 고전소설 교과서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겠다.

권성임[47]은 한문학으로서 국문학사에서 고전서사 양식적 가치를 인정받은 조선후기 한문단편을 이론적,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학습자가 한문단편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 한문단편 교육의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정별 수록 양상을 살피고, 새로운 수록 제재로써 이옥의 소설을 제시하였다. 고전소설 작품의 수록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편중되었다는 문제제기와 문학의 다양성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예로 이옥을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본고의 취지와 공통성을 갖으나, 고전소설 교육의 전반을 다루지 않고 한문단편 소설 교육에 한정되어 그 외의 작품들은 제외시켰다는 점, 두 인물의 '전'문학을 한문단편소설로 보았다는 점, 제6차에 머무르는 고찰이라는 점에서 차이와 한계를 보인다.

김보라[48]는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전기문학 교육에 적용하고자 여항인물전의 하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서 교육적인 문제의식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유형분류에 있어서 논리적인 합당성이 인정되나, 조선후기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작가군의 설정과 작품 선정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모호하게 되었다. 이는 문학 교과서에 싣는 작품의 필수 요건인 정선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간과한 논지로 그 폭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보인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는 고전소설의 수록 양상이 고전소설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현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18종을 대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고전소설 교육 제재 선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7차 문학 교과서에서의 고전소설 작품의 수록 양상과 함께 '전'의 단원 구성 현황과 더불어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겠다. 이를 근거로 현행 문학 교과서에 실린 고전소설 작품 중, 박지원 '전'[49]을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비교 군으로 삼고,

47) 권성임, 「고등학교 국어과 한문단편 교육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8) 김보라, 「여항인물전을 활용한 전기(傳記)문학 교육방안」, 성신여자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옥·김려의 '전' 32편[50]을 대상으로 한다. 이 두 인물의 문학사적 가치를 기저에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이옥·김려 작품에 투영된 작가 의식에 비추어 입전의식, 현실에 대한 인식, 인간관에 나타나는 특성 등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고전소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선후기의 시대·문학적 동향과 특징을 조망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 요소가 작품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어 표현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또한, 조선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문학 작품을 통해 교수-학습하는데 있어서 고전소설의 장르 중 '전'이 갖는 장르적 탁월성을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더불어, 작가의 생애 경험이 작가의식과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옥·김려의 생애와 주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Ⅲ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겠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과서의 고전소설 수록 양상을 파악하고, 각 교과서별 단원 설정 현황과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겠다. 이를 토대로 검인정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고전소설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전'문학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확충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옥·김려의 '전'을 그 문학사적 위치를 통해 교육적 입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각 시기별 교육 과정기를 거치는 동안 제기되었던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현행 교육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학습자 경험의 다양화를 통한 내면화 방안으로 조선후기 고전소설사에서 독특한 면모를 인정받은 이옥·김려의 '전'과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 '전'을 비교 검토하여 그 계승·발전 관계를 규명하고, 두 그룹의 상이점을 통해 이옥·김려 작품의 교과서 수록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

49) 제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전'은 <광문자전>,<예덕선생전>,<양반전>, <허생전>, <호질>로 총 5편이다.

50) 이옥의 '전'은 『담정유고』와 『담정총서』에 23편이, 김려의 '전'은 『담정유고』에 9편이 실려 있다.

Ⅱ. 고전소설의 이론적 접근

고전소설 교육은 문학이 언어 예술이며 인간의 삶의 한 양식임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 자체가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틀(conceptional framework)의 역할로, 개인과 집단의 세계관을 구체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51]고 보고 그 교육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작품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작품에 담기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작품의 미적 장치를 탐색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당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재로의 내면화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전소설 교육 제재로서 '전'작품에 투영된 작가의식 변모양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이옥과 김려의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식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애 및 정조(正祖)의 문체반정과 비어옥사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통해 이옥·김려 작품에 이르러 조선후기 '전'문학의 확장과 세태화된 동인과 그 의미를 살펴본 후, 이들의 '전'이 갖는 고전소설 교육 제재로서의 가치를 살피는데 전거로 삼고자 한다.

1. 조선후기의 시대적 문학적 배경

조선후기는 중세의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다방면에 걸쳐 온갖 모순과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다.

임진·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변모하였다. 그에 따라 각 계급의 전형적인 세계관이 변화되고, 엄격하고 차별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신분적 질서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계급이 전통적으로 향유했던 문화의 영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52]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부의 축적에 따른 서민계층의 지위변동과 서민문화 형성으로 인한 주체성과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형성되었

51)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 2002. p.306.
52) 강남길 · 김영하, 『한국사 9』, 한길사, 1994. p.85.

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르게 된다. 이 시기 실학사상과 더불어 과거 양반계층들의 독점물이었던 문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창작층과 향유층이 서민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이상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점차 현실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대부 계층의 폐쇄적 성향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대부들을 문학적으로 교류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이러한 신분계층의 변화 속에서 서울은 정치적·경제적 중심지로 발달되었다. 당시 서울을 활동 무대로 하는 경화세족(京華世族)은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로부터 대량의 서적을 수입하는 장서가(藏書家)가 되고, 서화골동(書畵骨董)에 취미와 박학(博學)을 추구로 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때 서울의 백탑시파(白塔詩派)가 있었는데, 박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인층의 변화로 등장한 문인집단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된 문인군, 두 번째로는 신분상 양반사대부 이외의 집단에 속하는 문인군이다. 17세기 중반 이래 격화된 당쟁(黨爭)으로 노론(老論)이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소론(少論)이나 남인(南人)·소북(小北)에 속한 사대부들은 사실상 정치적·경제적으로 몰락에 이르게 된다. 집권층의 핵심들이 정치적·경제적 이득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들 몰락한 양반계층들은 문학과 학문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정치적 진출의 길이 좌절된 서얼(庶孼)집단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학술과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발휘하였는데, 이들이 18세기 후반 정조에 대거 등장한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이다.

한편 신분적·정치적으로 소외된 문인들 이외 정치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신분적 비교적 제한도 없으면서 사상이나 문학적인 면에서 소외된 문인군이 있었는데, 이옥과 김려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당대의 문인들과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회로부터의 소외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문학적으로 제약 받던 문인들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새로운 형태의 문학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민간의 삶에 대한 친화감, 고정된 격식으로부터의 탈피 추구 등이다.

조선조 400년의 봉건적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권위를 누려오던 주자학(朱子學)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시기였다. 그

틈을 타 실학과 서학(西學)이 유입되어 신 지식층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청과 비교해 조선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깨닫고, 조선 사회가 당면한 사회현실을 개척하고자 하는 학문적 반성이 일어난다. 이것이 조선후기의 실학사상(實學思想)이다. 실학자들은 주로 사회·경제·정치 등의 역사와 현실을 밝히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비판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이 실학사상은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근대적 요소에 착안하여 사회의 제 모순을 근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이 피부로 느껴지는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사상을 갖고 있었으므로 상공업의 진흥과 상품의 유통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윤리·도덕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상으로 전통적 유교에서 상업은 말리라 하여 배척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이들은 세계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는데, 자연이나 인간세계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근대적 사상의 형성을 보였다. 이러한 전통적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는 절대주의(絶對主義)적 세계관에서 상대주의(相對主義)적 세계관에로의 전환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성에 대한 옹호의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욕(情慾)을 긍정하는가 하면, 하층민의 인간성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고, 서얼들의 신분해방을 개진하고, 집권층이나 무위도식하는 유식층을 풍자, 고발하였다.

이 시기의 문학적 특징을 이루는 또 다른 배경은 개성의 발양을 중시하여 첨신(尖新)한 풍을 드러내는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이다. 명대 말엽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토해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 버리다(信心而出, 信口而談)"는 원굉도(袁宏道, 1568~1610)의 문학이나 기묘한 세계를 보여주는 경릉파(竟陵派)의 시문(詩文)은 의고주의(擬古主義)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53] 조선중기 이후 명말청초의 문학 서적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유포되어지면서 성리학의 세계에만 심취해 있던 조선의 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상과 문학 방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이러한 문풍은 명말청초의 각종 서적들을 수장(收藏)하고 다독하며 개성적이고 참신함을 추구했던 박용휴와 박지원·박제가·이덕무 등의 백탑시파에 의해 강하게 부각되었고 후기에 이르러 이옥과 김려에 와서 그 깊이를 완성하였다.

---

53) 안대희,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p.31.

박지원은 당대인들이 화이론(華夷論)을 근거로 하여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로 인식하고 이에 나아가 청을 오랑캐로 여겨 배척했던 것과 달리, 명청의 교체라는 세계사의 변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청을 인정하고 청대 문화를 수용하려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완성이 곧 북학이고 이 북학과 분리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문학이다.[54]

그 깊이를 더하여 이옥은 자신의 글에 그가 접하고 있는 명청 문집 및 소설, 소품서의 서명이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는 동시대 어떤 문인보다도 명청 서적에 대한 독서 경험이 많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 중『판교잡기(板橋雜記)』,『정사유략(情史類略)』과 같은 서적들은 이옥 문학의 여성 취향, 주정적 성향과 관련해 특히 의미가 있는 책들이다. 『판교잡기』는 명나라 남경 기원(妓院)의 갖가지 풍모와 명기들에 대해 적었는데, 강남의 번영했던 기원의 모습과 청의 침략 속에 고통을 겪는 재자(才子)·가인(佳人)들의 모습이 애상조로 그려져 있다. 또한 만명(晩明)의 유명한 문인인 마몽룡(馮夢龍1574~1646)이 편찬한『정사유략』은 남녀 간의 정(情)을 다룬 글들을 정정(情貞), 정감(情感), 정치류(情痴類) 등 24개 주제별로 편집 수록한 것으로 총 24권 전체 수록작이 860편이나 되는 거질이다. 이옥은 <심생전(沈生傳)>의 끝에 "이 이야기로『정사(情史)』의 보유(補遺)로 삼는다."고 말하거니와, 실제 『정사』에는 대부분의 권 끝에 보유가 붙어 있다.

이 밖에도 이옥은 많은 서적들을 접하고 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옥은 보다 문예적인 면에서 중국 총서류(叢書類)에 경도(傾倒)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상상과 허구가 가미된 소설류 작품들과 기이한 일들을 나열한 기사문(奇事文)들을 애독하며 거기 나오는 어휘와 전고(典故)들을 익히고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인용하였다.[55]

또한, 김려는 <고향옥소사제후(古香屋小史題後)>에서 『우초신지』를 풍고 김조순과 함께 아주 즐겨 읽었다고 하였고, 「단량패사」 권후에서는 임자년 간에 김조순과 함께 『우초속지』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우초신지』에는 명말청초의 일대 문인들의 글들이 실려 있는데, 전기의 범주에만 국한 시킬 수 없는 지괴(志怪), 유기(游記), 우언(寓言), 수필(隨筆)등이 다수 실려 있다. 150여 편이나 되는 내용은 장조가 말한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초신지』에는 명왕조 일반 백성들

54) 김경희,「연암 박지원 문학의 교육방안 연구-한문소설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05. p.33.
55) 김영진, 앞의 논문, 2002. pp.355~362.

의 고난을 통해 청조의 만행이 드러나며, 명왕조의 멸망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봉건관료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한 고발이 있으며, 하층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발견되며, 정밀함을 추구하는 과학자에 대한 예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단량패사」에는 <포수이사룡전>을 통해 김려의 대청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안민전>에서 과학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북학파들이 지녔던 청에 대한 생각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또한 「단량패사」에 남아있는 8전(八傳)을 통해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56]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은 격식과 규범으로부터 탈피와 자각의 개성 추구이다. 많은 문인들은 고문(古文)의 답습(踏襲)과 모방 대신 자연과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창작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내용면에서는 개인 성정을 읊거나 풍경이나 사물을 음영(吟詠)하는 전통적 주제에서 벗어나 현실의 사실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조선의 역사와 독특한 자연풍토・풍속・세태를 읊고, 시정의 비속한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아졌으며, 작가의 개성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의 창작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서민 특유의 생활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변모를 낳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조와 가사문학을 들 수 있다. 시조는 종래의 정형화된 정형시조에서 탈피하여 엇시조・사설시조가 등장했고, 가사는 서정적 가사에서 서사적 가사로 변모해 갔다.

또한, 이처럼 급진적으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사회상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들을 잘 형상화 할 수 있는 장르가 서사문학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핍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에서이다. 그로 인해 '전'에 유가적 표본상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층의 서민들도 입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알맞은 내용적・양식적 변용이 시작되게 된다.

'전'문학은 역사의 서술에서 나온 양식으로 사마천의 『사기』열전 이래 한자문화권에서 고유하게 발전해 온 문학 장르로서,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일정한 관점에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전'은 조선후기의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갱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양상이 매우 다

56) 허준구, 앞의 논문, 1997. pp.73~77. 참조.

양하게 변모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변장르에 속해 있던 소설이 중심장르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즉, '전'과 급부상하기 시작한 소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존의 '전'과는 다른 양상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의 과도기적 사회상과 관련된다. 이는 '전'의 본래적 성격이 포괄적으로 열려진 양식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의 형식에 담겨지는 세계의 내용이 달라지[57]는 개방적 성격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개함을 말한다. 특히 대표적 사건을 선택해 나열하거나 혹은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전'의 서술방식은 소설의 서사 방식과 연결되는 등의 형태로 그 장르적 교섭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장르적 성향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시정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도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제대로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선후기의 시대·문학적 흐름을 반영한 고전소설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에서 찾을 수 있겠다.

고전문학은 오랜 시간을 걸쳐 전승해 오는 동안 끊임없이 향유되어 현재에도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다. 즉, 고전소설 교육은 심미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적 실체로써의 고전소설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가 인간의 보편적 삶에 대한 체험을 확대하고 '자아실현'에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더 나아가 고전소설이 민족문화의 전통 속에서 문화적 가치로서 존재하며,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고전소설이 갖는 문학의 일반성과, 한국 문학의 구체성, 고전 문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품을 그 당대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재의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전소설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선인들의 정신세계와 삶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당대의 시대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알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고전문학의 양식적 특성 이해, 고전소설 작품의

57) 김균태, 『한국고전소설론』「'전'문학」, 새문사, 1990. p.103.

예술적 가치 파악,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 이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전' 문학을 통한 사회상 해석의 의미

학습자들에게 전기류의 작품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은 학습자들이 그 작품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얻고 동시에 입전 대상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동일시함으로써 내면화를 통해 미래의 삶의 방향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고전소설 작품이 갖는 교육적 효용성과 학습자의 자발적인 자아 모색을 통한 내면화를 강조하는 문학 영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 국문학계에서도 '전'문학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비단 그 범위가 기존의 소수 문인들에서 국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소외되었던 여타의 작가들에게로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작품이 '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수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은 경전 속에 함축된 성인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후세에 전수한다는 뜻의 역사서술로서의 '전'에서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형식이 된 것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부터이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인들의 개인문집이 성행하여 사사로이 '전'을 수록하게 되면서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즉, 전달의 의미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발전하고,『좌전(左傳)』에 이르러서는 서술의 성격으로 변모하여 기록의 성격을 벗고 서사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여 이것이 곧, 인물 중심의 '전'이라는 발전된 모습으로 형상화 된 것이다.[58]

'전'에 대한 분류는 열전(列傳), 사전(私傳), 탁전(托傳), 가전(假傳)으로 열전은 사관(史官)이 짓는 정사(正史)의 공식적인 전으로 입전 대상은 계세징인(戒世懲人)하고 포폄(褒貶)하는데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이다. 따라서 입전 의식이 유가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실현시킨 인물을 포장하여 취하함으로써 그 반대의 인물을 폄하하여 사회질서를 정비시키려는데 있어 그 대상이나 내용, 행위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그에 비해 사전은 사사로운 기록에 기인하므로 그 입전 인물에 대상이 다채로웠다. 그래서 세속에 묻혀 있어서 덕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거나 보잘 것 없는 인물이라도 그 행위나 품성에 있어 본받을 만한 경우 입전 대상으로 삼았다.

58) 박정경, 앞의 논문, 1993. pp.7~9.

공적으로 유가적인 모범이 되어 표창을 받지 못한 인물이라도 그 대상에게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여 부각시키려는 입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입전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

탁전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우의로써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입전한 '전'으로 인물 자체의 실존·부재의 문제보다 인물의 행위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입전 인물을 설정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고, 전 생애가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의 시각이나 사건, 일화에 초점을 맞춰 강조할 수 있다. 입전 대상에 있어서도 기인한 재능을 지녔으되, 세상에 발탁되거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빛을 바라는 일화를 낳는 인물이다. 즉, 탁전은 한 인물의 포폄보다는 그 인물의 행위를 통해 우의적인 수법으로 사회나 세태를 풍자하고 고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탁전의 작가는 입전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가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선정하므로 정확한 출처나 근거가 없이, 시정에 떠도는 이야기 등 만으로도 입전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설화나 민담과의 연관성을 크게 지니고 주관이 강하며 과장과 허구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부분이 '전'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는 부분으로 추후 장르적 교섭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요인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전 작가의 창의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이 바로 가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것의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해서 그 속에서 인간상을 풍자와 지적을 통해 교훈은 주는 것이다. 작가가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스런 말이나 행동을 문장에 섞어 쓰는 골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가전은 '전'의 일반적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허구적이고 골계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단편적으로 수집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그것도 사물에 빗대어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장르적 교섭이나 수용의 개방성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기옥[59]은 '전'을 전기의 하위 단위로 간주하여 검토하면서 전기는 역사와 소설이라는 두 축에 공동으로 걸리는 중간 항으로 서사양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런 까닭으로 전기는 사실지향의 역사적 속성과 허구지향의 소설적 속성을 포괄해야 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그 영역은 역사와 소설의 두 쪽에 모두 걸치는 중간지대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

59) 성기옥, 「'전'의 장르론적 검토」, 울산공대 울산어문논집 1집, 1984. pp.75~77.

이와 같은 '전'이 지니는 인접 장르와의 교섭 가능성은 초기의 사전에서부터 비롯되어 다른 양식과의 교섭을 통해 새로운 양식으로 변모하거나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선후기의 '전'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설화·민담의 수용양상이나 소설로의 변용성이 이를 반증한다. 이렇듯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입전자들의 관심에 따라 '전'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며 현실 비판적 '전'들도 창작되어 작가의 솔직한 비판의식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조선후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의 사회상의 구체적인 실상을 통해 신분제의 동요, 화폐경제의 발달, 중인기질의 고양 등으로 특징되는 새로운 세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전'문학이 가지고 있는 변용 가능성과 개방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사회비판과 아울러 가치 이념을 형상화하기 용이함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전'의 입전 대상은 중앙의 관서 관리들은 물론이고, 지방 관아의 서리, 아전, 건달, 노비, 기생, 사기꾼, 거지 등 피지배층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이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사상적·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임병양란 이후 조선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역관을 중심으로 중인계층이 형성되면서 자체적인 문학과 사상을 형성하고, 서민들의 주체성 자각으로 인하여 인간평등 사상에 눈을 뜨게 되고, 기존의 성리학의 근본에 반하는 북학 사상과 상대주의적 태도가 형성된다. 이 같은 사상적 변동을 통해 일부의 자각하는 지식층이 피지배층인 시정의 삶에 대해 관심을 확대시켜 다양한 형태의 인물군상을 입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분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당시까지 체제를 유지해왔던 신분제가 와해되고 상품 경제의 확대로 인하여 중인계층에서 부를 독점·축척하게 되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가기 시작한다. 상당한 부를 축척한 중인계층들은 신분적인 제약에서 오는 좌절과 갈망을 문화·예술적인 활동의 추구로 해소하려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상적·사회적 흐름 속에 '전'문학의 창작은 점차 확대·발전되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가객, 악공, 유협, 의원, 거지, 노비 등 당대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작품에 입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출현한 또 하나의 문학양식인 야담집(野談集)은 전류(傳類) 야담을 통해 '전'과 '야담'의 변

별성을 모호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전'이 바로 이옥·김려의 '전'이며, 이 흐름은 19세기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호산외기(壺山外記)』의 '전'까지 연결된다.[60] 박지원은 늦은 나이에 환로에 나갔으며 이옥·김려는 문체 문제로 인하여 결국 출사의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한미한 상태로 일생을 마쳤으니 중인을 비롯한 시정인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상당 정도 경도된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 '전'의 입전 대상들을 살펴보면, 조선전기에 비하여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전기의 입전 대상은 주로 충신(忠臣), 열녀(烈女), 효자(孝子), 열사(烈士) 등으로 그 신분들이 지배층이고, 유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충분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전'의 입전 대상들은 말거간꾼, 인분수거꾼, 민녀(民女), 검공(劍工), 점쟁이, 가객, 거지,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유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신분적 제약이 뒤따르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신분적인 열세로 인해 삶이 치열하고, 사회적인 진출이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좌절이 따랐다. 때문에 삶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제약과 폐단에서 오는 부당한 처우에 좌절되어 그 가능성마저 펼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과 기지를 발휘하여 주체적인 삶을 보여주기도[61] 한다.

지금까지의 '전'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계에서 인접 장르와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개별 작가의 전체 작품, 혹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의 서사구조나 형식상의 문제, 작품과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작품들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나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고전소설'장르 영역에서 다수의 작품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국문학사적 기존의 권위에 치중하여 일부 작가들의 작품만을 방법론으로 다루고 있을 뿐, 여타의 소외되었으나 그 가치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작가들의 '전'작품을 다룬 교육론적 입장에서의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전'문학의 효용성을 조명하는 접근은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삶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고찰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

60) 박정경, 앞의 논문, 1993. p.10.

61) 조선후기에 나타는 다양한 인물군상의 형태에 대하여 박희병은 "이러한 전의 입전 대상들은 획일성과 규범성에 따라 움직이는 중세적 인간형이 아니라, 발랄함과 생기, 자의식과 개성이 넘치는 인물들이다. 이른바 주체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다.(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p.85.)

3. 생애 및 '문체반정(文體反正)'과 '비어옥사(蜚語獄事)'

이옥의 성장 배경이나 행적, 사승(師承)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자신의 글과 김려의 제후(題後)에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이옥의 자는 기상(其相)이고, 호는 문무자(文無子)·경금자(絅錦子)·매화외사(梅花外史)·매암(梅庵)·매계자(梅谿子)·매화탕치농(梅花宕癡儂)·청화외사(靑華外史)·도화유수관주인(桃花流水館主人)·화석자(花石子)·석호주인(石湖主人)·문양산인(汶陽山人) 등[62]이다.

이옥의 생애에 대한 최근 발표된 김영진의 연구[63]에서 문무자의 생애와 가계에 대한 새로운 점이 고찰되었다. 그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족보(族譜)인『선원속보(璿源續譜)』에 근거하여 이옥의 가계와 교우관계를 고증하였다. 이옥(1760~1815)은 전주(全州) 이 씨 왕족으로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이지만 윗대부터 무반(武班)의 집안이었고, 이옥의 고조인 이기축(李起築)이 서자로서 승적(承嫡)[64]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가계를 이은 것으로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15세에 최종의 딸과 혼인을 하여 두 아들을 낳았으며, 24세에 학질(瘧疾)에 걸려 석 달 동안 고생을 하였다. 30세(정조14년, 1790)에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성균관의 상제생(上齊生)으로 동제(東齊)에 기숙하였다. 32세(정조16년, 1792)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정조(正祖)가 요구하는 고문체(古文體)를 쓰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야기하듯 소설 문체를 사용하였다하여 낙방한다. 그 결과 문체반정에 연루되어 출사의 길이 막히고, 실록(實錄)에 까지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65] 35세(정조19년, 1795)에는 임금의 명을 받고 글을 짓는 응제(應製)에서도 소설 문체를 썼다는 이유로 견책(譴責)을 받고 과거 응시 금지령인 정거(停擧)는 물론, 청양(靑陽)과 구례(求禮)로 유배를 가게 된다. 돌아와 그 해 9월 다시 응제했으나 이번에도 정조의 문책(問責)을 받고 충청도 정산현(定山縣), 경사도 삼가현(三嘉縣)으로 충군(充軍)명령을 받고 귀양하게 된다. 서울로 돌아온 36세(정조20년, 2796)때에도 별시(別試) 초시(初試)에 장원(壯元)하였으나 정통에 벗어난 문체라는 이유로 방말(榜末)에 붙

62) 이옥은 자신의 작품들에 평론부를 쓸 때, 자신의 별칭으로 다양한 호를 사용한다.
63) 생애에 대한 고찰은 김영진(2002)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64) 승적은 이를 원하는 자가 관찰사를 거쳐 입안을 올리면 예조에서 승인해 주었으나, 승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양반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상의 사회적 대우는 서족 그대로였다고 한다.(김동판, 앞의 논문, 2003. p.8. 재인용)
65) 朝鮮王朝實錄 16年. 壬子 10月 制.

여져 다시 삼가현으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어 친구 김대성의 집에서 살면서 글을 쓰게 된다.

그의 나이 40세(1800년)가 되서야 해배(解配)되어 귀경(歸京)하였고,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절친한 친구인 김려가 강이천의 비어사건(蜚語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음을 알자, 이옥은 벼슬길을 단념하고 낙향한다. 고향에서 오직 문학에 뜻을 두고 즐기다가 55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南陽) 매화동(梅花洞)에 있었고 얼마간의 전장(田場)과 노비가 있었다. 그의 <물고기 기르는 못에 때하여>[66]에 따르면 바닷물을 막아 어장을 조성하는데 아흐레 걸쳐 오십여 명의 공력을 투입했다고 하며, <차조 이야기>[67]에는 차조 밭을 가꾸는데 "어른 종 한명, 아이종 넷, 여종 셋"이 동원되었고, 또 넓고 한적한 땅에 온갖 곡식을 가꾸며 집안에 수백 권의 장서(藏書)를 갖추고, 마당에는 기십 본(本)의 꽃을 심었다고 한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경제적 여건 아래 독서와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은 무반에다가 서족으로 이어져 온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청·장년기를 줄곧 서울에서 보냈는데, 신분 출신과 문체반정의 영향으로 교우관계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에 재학 당시의 인물들, 그리고 북인 계열의 인물들과 사귀었을 뿐이고, 특히 지기였던 김려만이 당색(黨色)을 떠나 사귄 인물로 그를 통해 소북파(小北派)의 강이천(姜彛天, 1769~1801)과도 밀접한 교우관계를 가졌다.

이옥의 생애는 정조의 문체반정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문체반정이 일어난 당시, 정조는 부의 축척에 따른 서민계층의 대두와 그들만의 문화 부흥으로 인한 주체성 자각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는 온건한 봉건체제의 붕괴를 의식한 것으로, 옛 것을 본받지 않는다는 명분 이면에 자신의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였다. 즉, 체제에 반하는 인물들은 입신양명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옥의 생애를 볼 때, 타협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기질이 보이는데, 당시 문체반정에 연루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자신의 문체를 고칠 것을 맹세하였다. 오직 이옥만이 끝까지 자신의 문체를 고집하여 정거와 유배를 당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학관에 대한 확신과

66) 이옥 저, 『역주 이옥전집』 1권, 소명출판, 2001. 기(記) - p.237.
67) 이옥 저, 위의 책, 2권. 문여(文餘) 2- 잡제(雜題) p.151.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신분적 한계와 제도적 모순에 대해 불만을 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후기의 문인으로 악부시의 대가였으며, '전'을 지어 불우한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김려의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자는 사정(士精), 호는 담정(潭庭)・해고・귀현자(歸玄子) 등이었다.

김려는 정안 김씨(定安金氏)의 후손으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1776년에 태어나 1821년 52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친 문인이다. 특히 김려의 칠대조(七代祖)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은 당쟁과 연관이 깊은데, 광해군(光海君) 때 이이첨(李爾瞻)의 무고로 사사(賜死)되었다. 오대조(五代祖) 김군석(金君錫)은 그때 나이 겨우 일곱 살이었는데 시종이 몰래 데리고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하고 강릉의 절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겨우 종시(終始)가 끊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김재칠(金載七)은 벽파의 우두머리인 김귀주(金龜柱)와의 대립으로 관직을 삭탈(削奪)당하고 야인(野人)의 생활을 해야만 했다. 김려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선대(先代)의 불행을 듣고 보며 성장하였기에 누구보다도 당쟁의 참상을 절실히 실감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 세태의 모순을 비판하는 시각과 더불어 서민의 삶에 애정 어린 시선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가 의식의 반영은 '전'을 비롯하여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1792년(27세)에 김려는 성균관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김려가 성균관 유생(儒生)으로 지내던 시기는 그의 생애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뒷날 정조의 문체반정에 같이 연루되었던 이옥, 강이천 등을 만났으며, 문학에 있어서도 많은 교류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행했던 패사소품체를 익히면서 김조순(金祖淳, 1765~1832) 과 앞서 『우초신지』를 본받았음을 언급한 바 있는 『우초속지』라는 소품집을 냈다.

정조 21년(1797년)에 강이천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된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咸鏡都 富零)에 유배된다. '비어사건'은 서해의 어떤 섬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민심을 어지럽히고 기인취물(欺人取物)한다는 골자를 말한다. 이 사건은 격변하는 시대를 살며 동요하던 중세적 지식인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노론의 핵심 인물인 김건순(金健淳, 1776~1801)이 연관되어 당쟁이 재연될 것을 우

려한 정조는 근본 원인을 소품체에서 찾는 것으로 무마시켰다. 그러나 순조(純祖) 1년(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에 이 사건이 다시 문제시 되어 경상도 진해(鎭海)로 이배(移配)되었다. 이 때 그곳에서 어민들과 친해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를 짓게 되는데 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와 함께 우리나라 어보(魚譜)의 두 핵을 점한다.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옥사로 고초를 겪고, 10여년의 유배생활을 하다가 순조 6년(1806년)에 풀려나, 3년간 상복을 입은 후 은사(恩赦)로 관직을 제수 받아 연산현감(連山縣監)에서 함양 군수(咸陽 郡守)로 역임하다가 순조 21년(1821년)에 생을 마감한다. 비어옥사는 소품문예라 지탄되던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김려, 강이천 등의 문사(文士)들이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시파(詩派)를 제거하려던 벽파(僻派)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복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0여년의 유배생활로 진사 급제 후 앞길이 촉망되던 포부는 무산되고, 유배에서 풀려난 만년은 주로 저술과 총서(叢書)의 편집에 전념하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부사 유상량(柳相亮, 1764~?)과는 반목하고 가난한 농어민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는 그의 문학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곳에서 부기(府妓)인 연희・노심홍・관옥・영산옥 등과 어울리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시를 지었다. 이러한 10여년의 유배생활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실제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김려는 『사유악부』를 창작하게 이르는데, 이는 290수의 연작(連作)을 통해 조선후기 변방 민중의 생활을 폭 넓고 깊게 그려내고 있다.

기속악부의 전형적 예인 <황성리곡(黃城俚曲)>은 충청도 연산현감으로 있으면서 관찰한 지방의 풍속과 세태를 다룬 것으로, 그 중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은 세태적 서사성까지 겸비한 장편서사시이다. 백정의 딸인 여주인공을 양반의 며느리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인간평등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고 있다.

두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옥과 김려의 문학은 깊은 관계성이 있다. 김려는『담정총서』에 이옥의 유고를 가장 많이 수록하였고, 그 유고에 붙인 제후에서 이옥의 문학을 극력 옹호하고 있다. 동시에 김려는 이를 통하여 자

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김려는《제문무자문여권후(題文無子文餘券後)》에서 패사소품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무자문여(文無子文餘)」와 이언(俚諺)·속어(俗語)·방언을 구사하여 쓴「남정십편(南程十篇)」이야말로 진정한 고문이라고 주장하였다.[6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옥·김려는 역사적 격동기를 살아 온 인물로 시대적 모순과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작품 활동에 있어서 '패사소품체'를 고집·옹호함으로써 정권투쟁의 희생양으로 역사의 그늘 속에서 불우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는 내적 요인보다 외적 문제, 즉 당대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의 격동기를 살면서 독특한 문학세계를 이뤘던 이옥·김려의 작가의식을 고찰하는 것은 후기 고전소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고 풍부해질 것이며, 아울러 '전' 자체의 교육적 존재 가치를 파악하는 데도 의의가 있으리라 보아진다.

68) 강명관, 앞의 논문, 1984. p.336.

Ⅲ. ‘전’문학 교육의 문제 및 방향

고전소설 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우리문학의 고유성을 깨닫게 하고, 한국 서사 문학의 한 양식으로 그 전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작품 내면에 흐르는 인류 보편적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삶의 진정성과 가치성 등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자국민으로서 정체성과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확립하도록 방향을 잡아야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는 여러 방향에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신분제의 와해와, 이에 따른 서민계층의 왕성한 활동으로 문학 담당층의 확대와 지위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문학 담당층이었던 사대부 계층들도 시정의 인물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정의 인물들을 입전하여 다양한 인물들이 문학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시대나 장르를 막론하고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기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내면세계의 잠재된 의식은 작가만의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작가는 시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당대의 상황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 두 그룹-박지원과 이옥·김려-은 17~8세기에 삶을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변화를 몸소 느꼈고, 그 결과 사회현실의 비리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선후기의 시대·문학적 배경요소를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인정 18종 문학 교과서의 단원구성을 통해 학습 요소와 교육과정상 내용 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전소설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살피기로 한다.

1. 고전소설 수록양상 및 ‘전’의 단원구성 현황

교과서에 선정되는 고전문학 작품은 “고전 속에 담긴 갈고 닦인 정신의 생명력을 통하여 보람된 정신세계의 현실을 누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며, “선인들의 문학세계를 파악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대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악,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 할 것”[69]이어야 한다.

교과서 수록 제재는 교육의 일차 텍스트이자 도구로서, 현행 교육과정에 수록된 고전소설 작품 수록 양상과 단원 설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상과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은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이 될 것이다.

【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소설 수록 현황과 편성】

출판사/저자	구분	대단원 및 소단원	작품명	기타
교학사 교육인적자원부	상	5. 능동적인 의사소통	(2) 구운몽	김만중/김병국 주해
	하	2. 정보의조직과 활용	(2) 허생전	박지원/이우성 옮김
		7. 전통과 창조	(1) 춘향전	작자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의 대폭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의 교과과정 편제와 구조의 변화가 특징이다. 즉, 과목 수가 1과(국어생활) 확대 되었으나, 필수과목 수가 '국어' 한 과목이고 여섯 과목(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선택 과목이 되었다. 이는 '문학'과목이 심화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접하는 문학은 10학년의 '국어'과목의 문학 영역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과목에서의 고전소설은 문학적 역량을 갖춘 작가가 일상 언어 사용과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 양식적 가치를 형상하는 예술로서의 다루어지기 보다는 독서물로 한정되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은 그 자체의 문학성이나 갈래적 특성보다는 하나의 대단원 아래 비문학적 제재와 현대소설 제재, 그리고 다른 갈래 문학 작품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원을 다양한 갈래의 작품으로 구성하여 문학 작품 주제의 공통성을 드러내어 문학 작품 주제의 보편성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론적 체계[70]로 고전소설 문학을 현대소설 문학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되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69) 양승만, 앞의 논문, 2005. p.30.

70) 문학교육과정 구성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의 '문학'을 무엇으로 어떻게 타당하게 구조화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장르론적 구성 체계는 문학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관심을 일차적으로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이 생겨나고 존재하는 외적 양식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제론적 구성 체계는 일차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며 가치지향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념적 자아를 확장해 주기 위한 문학교육에 유효하다. (최병해 · 마용운『문학 및 문학교육』, 들풀, 2005. pp.125~127.)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 설정된 문학 과목은 기본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의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심화시킨 과목으로 내용도 과목의 성격을 그대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고전소설 현황과 편성】 *71)*

출판사/저자	구분	대단원 및 소단원	작품명	교육과정 내용체계	기타
중앙교육 조남현 외 4	상	Ⅳ. 소설의 수용와 창작 2. 소설의 감상과 수용	(1)유충렬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자미상
	하	Ⅱ. 한국문학의 흐름 3. 중세 후기의 문화와 문학 4. 근대 여명기의 문화와 문학	(7) 이생규장전 ***(4) 호질*** (5) 토끼전	(3) 문학과 문화	김시습/이민수 옮김 박지원/이우성 임형택 옮김 작자미상
블랙박스 한계전 외 4	상	Ⅳ. 문학의 구조와 수용원리 1. 문학의 미적 구조와 문학성	(2) 박씨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자미상
	하	Ⅵ.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 2. 문학의 소통과 관습 Ⅷ.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3. 중세 전기 문학의 흐름 ② 조선 전기의 문학 ③ 조선 후기의 문학	(2) 박타령 (2) 이생규장전 ***(1) 양반전*** (2) 춘향전	(3) 문학과 문화	작자미상(박녹주 창본) 김시습 박지원 작자미상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금성출판 박경신 외 3	상	Ⅳ.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소설의 내용과 주제	***(1) 광문자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박지원 (방경각외전/이가원 옮김)
	하	Ⅲ. 민족 문학의 흐름 3. 국문 문학의 형성과 발전	(6) 이생규장전 (7) 홍길동전 (8) 박타령	(3) 문학과 문화	김시습 (금오신화/이재호 옮김) 허균(경판본) 신재효정리 (신재효판소시사설집)
두산 우한용 외 5	상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2. 서사와 갈등의 세계 ② 사랑의 성숙의 아픔 ⑤ 이상향을 위하여	(2) 운영전 (2) 홍길동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자 미상 허균(완판본)
	하	Ⅴ.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 1. 한국 문학의 모색과 정립 ① 공동체 형성과 말의 문학	(4) 홍보가 (1) 사씨남정기	(3) 문학과 문화	김연수 창본 '홍보가'(장단) 김만중

71) 위 표는, 백녹희(2005. pp.11~15.)의 논문을 참고로 교육과정상 제시된 내용체계와 수록제재의 단원 학습 구성의 관계성을 추가하여 재조직 하였다.

		④ 개인의 각성과 총체적 진술	(2) 유충렬전 (3) 장끼전		(구활자본'사씨남정기') 작자미상(완판본'유충렬전') 작자미상(구활자본'장끼전')
교학사 구인환 외 5	상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을 어떻게 창조적인 재구성 할 것인가? ② ~창조적 재구성	***(1) 허생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박지원(이우성옮김)-채만식
	하	Ⅱ. 한국 문학의 세계 문학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① 한국 문학의 갈래와 특질 이해하기 2. 한국 문학과 세계문학의 전개 ② 중세 문학 ③ 근세 문학	***(1) 양반전*** (5) 이생규장전 (3) 홍보가	(3) 문학과 문화	박지원(이가원 옮김) 김시습 박봉술 창본
케이스 김병국 외 4	상	Ⅲ. 문학의 수용과 창작(2) -갈래 2. 서사의 세계 ② 인물과 배경 ④ 서술의 시각	***(1) 양반전*** (1) 홍보가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박지원(방경각외전/이우성,임형택 옮김) 작자미상(박녹주 창본)
	하	Ⅴ. 문화의 흐름과 문학의 양상 3. 한글 창제와 국문 문학의 발달 4. 민중의식의 성장과 산문문학의 융성	(3) 이생규장전 (3) 유충렬전	(3) 문학과 문화	김시습(금호신화/이가원 옮김) 작자미상(완판본'유충렬전')
디딤돌 김윤식 외 4	상	Ⅰ. 문학의 특성 3. 문학의 구조	(1) 심청가	(1) 문학의 본질	정권진 창
		Ⅲ.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 2.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③ 주제와 갈등	(2) 이생규장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김시습(금오신화/이재호옮김)
	하	Ⅱ. 조선시대의 문학 1. 조선시대의 문학	(3) 사씨남정기	(3) 문학과 문화	김만중(번언남정기)
천재교육 홍신선 외 2	상	Ⅲ. 소설의 수용과 창작 1. 소설의 인물과 성격 2. 소설의 시점과 구성 3. 소설의 배경과 문체 4. 소설의 주제와 갈등	(1) 사씨남정기 (1) 춘향전 (1) 박씨전 (1) 이생규장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김만중(구활자본) 작자미상(완판본) 작자미상(구활자본) 김시습(금오신화)
	하	Ⅵ.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4. 근대 이행기 문학	(3) 서동지전 (4) 박타령	(3) 문학과 문화	작자미상 신재효 정리
상문 강황구 외 4	상				작품 게재 없음
	하	Ⅴ. 문학과 삶 1. 개인의 삶과 문학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② 삶의 의미 2. 역사 속의 삶과 문학 ① 현실의 반영 ④ 현실 극복의 의지	***(3) 예덕선생전*** (2) 장끼전 (1) 박씨전		박지원(방경각외전) 작자미상 작자미상
민중서림 김창원 외 3	상	Ⅳ. 문학 활동의 가치와 태도 3. 문학과 공동체의 발전	 (1) 임진록	(4) 문학의 가치와 태도	 작자미상
	하	Ⅰ. 문학과 문학 문화 1. 문화로서의 문학 2. 문학 문화의 다양성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4.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문학 5. 조선 후기의 문학 ① 이 시기 문학의 양상 ③ 호질	 (5) 전우치전 (8) 홍길동전 (5) 만복사저포기 구운몽(맛보기) **호질**	(3) 문학과 문화	 허균('홍길동전'초등학생용) 김시습 김만중 박지원('열하일기'에서)
문원각 한철우 외 7	상				작품 게재 없음
	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 3. 조선 시대의 문학	 ***(4) 양반전*** (5) 홍보가	(3) 문학과 문화	 박지원(방경각외전/이가원 옮김) 박녹주 채록(장단)
태성 김상태 외 5	상				작품 게재 없음
	하	Ⅸ. 한국 문학의 흐름(1) 4. 조선 후기의 문학	 (2) 홍계월전	(3) 문학과 문화	 회동서림본
교학사 김대행 외 2	상	Ⅰ. 문학이란 무엇인가 2. 문학의 기능	 (1) 박타령	(1) 문학의 본질	 신재효 사설집
		Ⅳ. 소설 문학과 이야기하기 1. 이야기와 허구 2. 인물과 구성 4. 소설의 수용과 창작	 (1) 이생규장전 (1) 홍길동전 (2) 박씨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김시습(금오신화) 허균(경판본'홍길동전') 작자미상(필사본 고려대)
	하	Ⅺ. 문학과 함께 하는 삶 3. 주체적인 문학 활동	 ***(2) 허생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오영진 희곡집
형설 박호영 외 1	상	Ⅳ. 주제별 수용과 창작 2. 사랑과 그리움 3. 삶의 애환과 죽음 5. 역사와 현실 속의 삶 ② 삶의 조건으로서의 현실 6. 웃음과 비판 정신	 (3) 숙향전 (3) 심청전 (3) 임진록 ***(3) 양반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자미상 작자미상 작자미상 박지원(이우성 임형택 역)
	하	Ⅰ. 문학의 흐름 3. 조선 전기의 문학 ⑤ 번역문학 4. 조선 후기의 문학 ③ 소설	 (4) 이생규장전 작품 없이 개관	(3) 문학과 문화	 김시습(금오신화)
지학사 박갑수 외 4	상	Ⅳ. 서사문학의 수용과 창작 2. 인물과 배경	 (1) 사씨남정기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김만중

	하	Ⅰ. 문학과 문화 1. 문화로서의 문학 Ⅱ. 한국 문학의 흐름 3. 조선시대의 문학	(2) 춘향전 (4) 이생규장전 (5) 홍보가 ***(6) 양반전***	(3) 문학과 문화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시습(이재호 옮김) 박송희편, 박녹주창본(장단) 박지원(연암집 이우성,임형택 역)
지학사 권영민	상	Ⅱ.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 작품의 주제	***(1) 양반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박지원
	하	Ⅰ.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2. 조선 시대의 문학 ② 조선 시대의 문학의 갈래별 전개 Ⅱ. 문학과 문화 1. 문학 문화의 특성 ② 문학 소통 과정의 규칙과 관습	(4) 심청전 (1) 홍보가	(3) 문학과 문화	작자미상(완판본) 고어표기 박녹주 창본(장단)
청문각 최웅 외3	상	Ⅱ. 소설의 수용과 창작 1. 소설의 특성과 주제	(1) 박씨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하	Ⅱ.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 3. 조선시대의 문학	(3) 이생규장전 (4) 열녀춘향수절가	(3) 문학과 문화	김시습(금오신화)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Ⅲ.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1. 문학의 가치 인식 3. 문학에 대한 태도	(2) 홍보전 (2) 사씨남정기	(4) 문학의 가치와 태도	경판 25장본 경판 63장본
대한 오세영 외 7	상	Ⅱ. 문학의 수용 3.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5) 홍보가 ***(7) 허생전***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출전 없음, 장단) 오영진
	하	Ⅳ. 문학과 문화 1. 문학 문화의 특성 3. 문학과 인접 예술의 교류 Ⅴ. 한국 문학의 세계 문학 2-3. 조선 전기의 문학 2-4. 조선 후기의 문학	(4) 춘향전 (심청가) (2) 이생규장전 ***(2) 양반전***	(3) 문학과 문화	작자미상 판소리'심청가'중에서(장단) 김시습 박지원

위 표를 통해 제7차 문학 교과서에서의 고전소설 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면, 문학 교과에 수록된 작품의 횟수 양으로 보면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는데,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이 12회,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가 1회 수록되었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다음으로 <양반전(兩班傳)>이 9회,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춘향전(春香傳)>이 5회, <허생전(許生傳)>, <박씨전(朴氏傳)>, <심청전(沈淸傳)>이 4회, <유충렬전(劉忠烈傳)>이 3회 순이다.

<흥부전(興夫傳)>의 경우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을 각기 달리 반영하여 모두 12

종의 교과서에 <박타령> 6종, <홍보가> 5종, <흥부전> 1종이 수록되었다. <박타령>의 경우는 문학사 보다는 문학과 문화의 특징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흥보가>의 경우 문학사를 학습목표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읽어봤거나 들은 바 있을 부류의 익숙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어와 문학 교과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된 작가는 박지원으로 <허생전>, <호질>, <양반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이 총 21회 인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반전>이 문학 교과서 9종에서 인용되고, 국어 교과서에 전문이 수록된 <허생전>은 문학 교과서에서 다시 부분적으로 4종 문학교과서에 걸쳐 인용되었으며, <호질>은 2종에 인용,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각각 1종에 인용되었다.[72]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소수 작가에 편향된 작품 수록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수록 빈도나 작품 선정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작품 인용 빈도수라든지, 작가 군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문학에서 고전소설이 계속되는 국역의 성과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제재로서 다루고 있는 고전소설 작가들이 거의 변함이 없이 늘 같은 작품, 늘 같은 사람의 글을 배워왔다. 이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에 의한 편성의 절대성에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고전문학 연구의 성과가 교과서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제7차 문학 교과서에서 고전소설 작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교육과정 내용 영역 중 '(2)문학의 수용과 창작, (3)문학과 문화'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작품이 포함된 단원 역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나 '한국문학의 흐름', '한국문학과 세계문학'과 같은 단원들로 설정되어 작품의

72) 국가 검정 18종 문학 교과서에서의 박지원 '전'문학 수록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	본문	본문 외
허생전	[구]교학사(上), [김]교학사(下)	금성(上), 금성(下), 디딤돌(上)
양반전	[구]교학사(下), 문원각(下), 블랙(下), 케이스(上), 형설(上), [박]지학(下), [권]지학(上), 대한(下)	두산(下)
예덕선생전	상문(下)	
광문자전	금성(上),	금성(上)-3회*
호질	중앙(下), 민중(下)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내재론적 관점에서 살피거나, 한국 문학의 고유성, 특질 등을 파악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학습 활동을 이루도록 되어있다. 이는 박지원의 작품에 있어서도 동류의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제7차 문학 교과에서 박지원 '전'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던 바를 문학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명시된 영역별 세부내용을 통해 구체적 기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① 문학은 갈래와 작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미적 구조가 다양함을 이해한다.
② 작품의 주제는 주체, 구조,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한다.

(3) 문학과 문화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문화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여 세계와 삶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의 반영임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할 것을 상기하고 있다. 즉, 조상들이 문학세계를 파악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악함으로써,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조선후기의 문학 작품으로, 유독 박지원의 '전'작품이 다수의 문학교과서에서 편중되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고전 문학 제재 선정에 대한 언급에서 그 준거를 찾아볼 수 있다.

> 소단원의 본문을 차지하는 제재로는, 고전적인 글이든 현대의 글이든, 대체로 모범적인 것으로 널리 평가되고 인정된 글을 골랐다. 이 글들은 한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갖추게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적 삶을 담고 있어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3]

73)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국어(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p.26. (밑줄 필자)

[문-(3)]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화의 특질을 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안다는 것은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지고 나면, 이를 한국 문학이라는 개별적 공간에 적응하도록 한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작품을 통하여 접근하며,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사회 · 역사적인 조건을 검토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문화사적인 안목에서 파악해야하며,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9)]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및 현대 작품을 읽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이 항목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및 현대 작품을 읽고 감상하여,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이 대표적이고 가치 있는 고전과 현대 문학 작품을 식별하여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문학 작품을 가급적 장르별로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문학사적 연구에 의해 그 가치가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한국인의 다양한 삶과 정서, 한국 문학의 개성적 특징, 역사의식, 가치 등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다.[74]

특히 제7차 문학 교육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선조들의 세계관 및 인생관에 대한 이해를 당 시대의 사회·문화적 제반의 상황을 반영한 문학 작품을 통해 이해하여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은 물론 민족적 정체성, 가치의 내면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작품의 조건으로 '한국의 대표성'과 '교육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 즉 '모범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제7차 2종교과도서 집필 및 유의점 중 <문학> 과목에 명시된 집필 유의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라) 수록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문학적,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받은 것을 선정하고, 전작을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품 전체 내용의 요약이나 주석을 붙인다.[75]

74) 교육부, 앞의 책, 2002. p112~118. (밑줄 필자)

이는 학문계의 객관적인 검증과 공인성(公認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학사적인 권위에 입각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수의 고전소설 작품만 접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우리의 고전소설 작품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이는 각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관점을 나타내는 작품들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균등한 안목과 올바른 비판의식을 갖게 하여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내면화를 통해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기본적 고전소설 교육의 취지에 벗어난다.

다음 장에서 이옥·김려 '전'의 문학사적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고전소설 교재로서의 교육적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2. 현행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

문학은 당대 언어문화의 정수(精髓)이다. 어느 시대의 문학 작품이든 훌륭한 문학은 당대 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최고의 예술 세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고전소설 작품이 생산되고 향유된 당대의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선인이 가진 현실인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미의식 등을 포함한 정신세계의 이해에 다름없다.[76] 특히 문학 교과서의 경우 국어 과목과의 연계선상에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되, 다양한 작가와 주제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수록하여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선후기 사회는 정치적으로 권력의 독점 현상, 도시 상업자본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축적과 편중 현상 심화되어 기층민의 유리현상과 신분 변동 등이 급격히 진행되었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문학의 세태화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한 작가의 작품을 반복하여 싣는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우리의 고전소설 문학에 대한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시대적·사회적 문화를 대표하는 고전소설 작가

75) 박기범,「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단원체제 연구」, 청어문학, 2004. p.24.
76) 이지선,「연암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3.

로 박지원이 편중되어 선정된, 그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살펴 본 작품 선정 기준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이 추측해 낼 수 있다.

첫째, 박지원의 인간에 대한 경험과 안목이 드러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학습자는 인간에 대한 탐구적,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둘째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을 통하여 학습자가 그 당시의 문화적 양상 및 삶의 모습에 대해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박지원의 작품들은 당대 사회와 역사를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인물을 내세워 설명하고 준열하게 비판하려 했으며, 이때의 작중 인물은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매개로서 의의를 가지고[77] 그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박지원은 조선후기라는 변화된 역사 환경 속에서 이전과 다른 주제의식을 '전'작품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무능한 양반, 위선적 성격을 갖는 유학자 등의 유형들을 입전인물로 형상화하여 당대 정치가들의 패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그려냈다. 또한 조선후기 평민의 자각의식을 통해 평민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여 근대적 이행기의 이념적·체제적 변모현상을 드러냈다. 그의 사실적 수법과 서민생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속담·이언을 통한 대담한 표현 등은 이전의 문인들에게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현상이었다.[78]

그러나 박지원은 그의 작품 속에서 현실성과 비판성을 드러내어 이념성이 강한 문학을 추구하면서도 '사의식(士意識)'에 철저하여 체제의 붕괴와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주력하였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신흥 상공업자를 위시한 서민들의 움직임, 도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정의 동태 속에 역사의 방향을 희구한 것으로 모든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자신과 같은 계급인 사대부들에게만 집중되었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시대적 흐름의 모든 면을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사대부 계층이 주축이 된 조선의 체제가 임진·병자 양란으로 점차 와해되고, 생산력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경제 질서의 재편과 평민의식의 성장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

77) 이지선, 위의 논문, 2005. pp.22~23.
78) 정병호, 앞의 논문, 1988. p.8.

이 된다. 또 한편으로 삼정(三政)의 문란과 같은 사회의 모순들이 척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상하층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경제적 성장에 따른 윤리관의 타락과 시정인들의 피폐한 삶,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사회 제반에 걸친 변화가 격동하던 시기이다. 비단, 정치적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그 시대적 흐름의 양상과 의미를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박지원의 작품과 동시대에 지어진 것이면서 다른 시각을 표명하고 있는 작품을 제시하여 고전소설을 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선인들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의 삶에 폭넓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고등학교 국정 국어교과서와 검인정 18종 문학 교과서의 편재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의 대폭 축소와 선택 과목의 확대의 교과 과정 편제와 구조의 변화가 특징이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6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교수-학습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과 기능, 방법을 습득하는 개념적 방법론적 영역에 대해서는 <국어(상・하권)>로 구성되고, 국민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각 영역의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심화시킨 과목으로 <독서>, <작문>, <화법>, <문법>, <문학>에서 내용도 과목의 성격을 그대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성이 갖는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급한바와 같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확장하여 <문학>교과서를 설정한다는 기본적 취지로 '문학'과목의 성격과 내용을 통합・심화시키는 과정을 현장에서 다양한 작품의 제공을 통해 구현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행 <국어>교과서의 '문학' 영역과 <문학>교과서의 기능과 역할면의 살펴보았을 때, 계열적 위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박지원이라는 한 작가의 작품을 중복하여 수록함으로써 기본적인 작가의식과 세계관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어'과목에서의 고전소설은 문학적 역량을 갖춘 작가가 일상 언어 사용과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 양식적 가치를 형상하는 예술로서의 다루어지기 보다는 독서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심화하고 자는 <문학>교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어>교과서와 검인정 <문학>교과서는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심화・확충해 가는 나선형적 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인정 받은 <문학>교과서는 18종에 다다른다.

이렇게 <문학>교과영역의 종(種)을 다수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각 학교와 학급, 학생들의 상황과 요구, 필요에 부합한 교수-학습 활동의 수행에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학습자의 요구와 각 지역 및 학교의 실정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과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재량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행 검인정 <문학>교과서 18종의 구성은 거의 동일한 작가의 작품들, 더구나 작품의 수에 있어서도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선택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18종이나 되는 <문학>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기본 전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활발하게 다양한 작가군과 그들의 작품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국문학계의 연구 성과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학계와 교육계 간의 교류와 연계성을 저해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는 교과 내용 선정에 있어서 국문학계의 연구 동향에 열린 사고와 비판적으로 그 흐름에 동조하면서 정전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고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활동과 삶에의 내면화를 돕고, 나아가서는 국문학적인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 <문학>교과서의 편집자들은 수평적인 통합 관계를 형성하여 수록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하에 차별성을 두고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전소설 교육으로서의 '전'문학 교육과정의 작품 선정에 대한 편재 문제를 검토한 바, <국어>교과서와 검인정 <문학>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한 기준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각 18종 <문학>교과서 간의 차별성을 둔 작가군과 작품 선정을 통해 정전으로써 학계로부터 그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고 그 성과가 교육 현장에 효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시대상과 사회상을 교수-학습하는데 있어서 고전소설 교육으로써 '전'문학의 대표인 박지원의 작품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보다 확충되고 심화된 양상으로 계승 발전시킨 작가군으로 이옥·김려를 살펴보고 이들의 작품이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도록 하겠다.

18세기 후반 서민문학의 대두와 뚜렷한 장르 교섭의 결과 이루어진 '전'의 서민화·세태화 양태를 작품세계에 드러냈던 이옥·김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

국문학사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왔으나 이들의 작품은 교과서에 다룬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79]

조선후기, 하층 또는 중인층 그리고 일사들의 인물전이 성행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항간에 유포된 내용들이 많이 근거하게 됨으로써 야담집 소재 한문단편과 그 내용을 함께 하게 되는[80] '전'양식 중 국문학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시기 박지원류의 실학파들의 '전'과 패사소품체로 인식된 이옥·김려의 '전'이었다.[81] 이들은 박지원 '전'과 동류에 속하면서 '전'을 입전하는 의식이 사회적 반영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시정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입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존재가치를 강조하였다. 기존의 '전'을 계승하지만 상위계층의 인물들 뿐 아니라 평민이나 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입전시켜 입전인물의 다양화라는 조선후기 '전'문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인들이다. 전통적 '전'과 달리 인물이나 특이한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흥미까지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도덕적 교화에 효과적인 인물들뿐만 아니라 가객, 거지, 이인, 벙어리, 검공, 협객, 신선, 방술가(方術家), 사기꾼 등을 입전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작품은 다양한 표현법의 구사와 함께 소재가가 더욱 기이하고, 세태를 반영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독점 현상, 이른바 벌열정치가 행해지면서 몰락양반을 양산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도시 상업자본의 발달로 인해 자본의 축척과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기층민의 유리현상과 사회적 신분변동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던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반영하였다.

이상에서 우리 선조의 생활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82] 고전소설 중에서도 격동하는 조선후기의 사회·문화상을 문학적으로 반영한 이옥·김려의 '전'문학을 들었다. 그들의 문학은 생애적인 체험을 계기로 보다 시정의 삶에 가까운 위치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세태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어 사대부로서의 고민과 서민층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동반하여 나타내기 때문이다.

---

79) 우한용 외 3, 『문학』 상권, 두산동아, 1996. pp.126~127.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었음을 권성임(1996. p.29.)의 논문에서 확인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인정교과에 채택 된 《두산》에서는 <양반전>의 수록이 제외됨에 따라 동시에, <성진사전>도 제외되었다. 이는 <양반전>의 보조 자료적 성격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80) 이혜순, 앞의 책, 1994. p.152.
81) 이상덕, 앞의 논문, 1987. p.13.
82) 교육부, 앞의 책, 2001. p.303.

이옥·김려가 문체를 혁신하고, '전'문학에서 입전인물의 다양성과 더불어 사실적이고 폭넓은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바는 세태의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당대 문학의 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3. 제재 수록의 확충과 보완

고전문학은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던 사유방식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정서 세계를 통해 표현했던 창작방법을 보여준다.[83]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고전소설 작품을 당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영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인식하여 현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내면화 과정, 즉 원전(原典)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고전소설 교육에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고전소설은 고전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현재적 가치를 갖게 된다. 전통은 오늘날 삶에 유효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미래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그 가치적 의미를 갖는다. 즉, 고전소설 교육은 우리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작품 수는 많지만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화되지 못했다. 즉 <허생전>, <호질>, <양반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모두 교육과정 내용 영역 중 '(2)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나, '(3)문학과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품이 포함된 단원 역시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어 작품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고 내재론적 관점에서 살피거나, 한국 문학의 특질, 고유성을 파악하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살피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변동하는 시대적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문학사적인 권위에 입각하여 수록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상기의 작품들의 문학사적인 의의는 인정하는 바이나 조선후기의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상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앞 장에서 고전소설 작품의 수록이 특정 작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

83) 허왕욱, 앞의 책, 2003. p.71.

인하였다. 이는 모두 고전소설 중 교수-학습할만한 의미 있는 작품들이긴 하나 문제는 다수의 문학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비슷한 교과과정 내용과 단원에 실린 것이다. 이것은 문학을 다양한 방향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고자 2종 교과서를 편제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정된 고전소설 작품만 접하게 되면, 고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고리타분하다고 고정되어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 더구나 '(3)문학과 문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내용 체계를 달성하는 교과과정에서 사용하는 제재의 선정에서의 편중성은 문학을 통해 당대의 사회 현실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내면화 과정에 이르는 고전소설 교육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작품이 창작 된 시기의 사회·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제반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흐름들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의식을 가지고 창작활동에 임했던 다수 작가들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전'의 소설화, '전'의 세태화는 변화하는 조선후기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전'이 세태화 경향을 띠면서 '전'과 소설, '전'과 야담(野談)과의 구별마저 흐리게 하는 양식적 혼미성을 초래하였다.[84] 즉, 시대 상황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인물을 담아내기 적합한 양식으로 고전소설이 발전하게 되었다. '전'은 입전 인물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유교적인 덕목에 근거를 두고 가치규범적인 삶을 드러내고자 했던 관념적인 주제가 조선후기에 와서는 작가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고찰하고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자,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의 탐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고전소설의 독자층이 확대되고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질량적으로 풍족하게 되었다. 이야기 내용만으로는 야담이나 민담과 같이 시정에 유전(流轉)하던 소재를 취하여 작품화한 경우들이 다수로 늘어나 신분동향, 시정주변, 풍자와 골계, 사랑, 경제윤리, 과거제도, 학문과 처신 등 인간 생활 전반을 제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민간에 떠도는 야담류를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기피하던 사계층에서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흥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며 그만큼의 시대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옥의 '전'은 그가 패사소품체 작가로, 당대의 일반적 주류문인들과는 다른 독특

84) 김균태, 앞의 논문, 1985. p.155.

한 문학관에 의해 행하여 졌으며,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의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인[85]이라는 김균태의 규명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그의 문학사적 위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86] 특히, 이옥의 '전'이 양반적 사고에서 서민적 사고로 발전하는 전환기의 교량적 역할[87]을 하고 있다고 밝혀진 후, 최근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옥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근대 이행기적 가치관의 지향성을 밝히기 위해 '전'작품에 투영되어있는 의식기저를 밝혀내는 연구[88], 설화·야담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89], 소설로의 변용성을 고찰하는 연구[90]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 김영주[91]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적극적 발현에 초점을 두면서 작가의식을 신분제도가 지닌 구속성과 모순성, 조선후기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사회의 혼란상, 과거제도의 극심한 부패로 인한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보았다. 또 경제 구조가 지니는 부조리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고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며 무격신앙은 유자적 태도로 비판하여, 이러한 것

---

85) 김균태, 앞의 논문, 1977. p.37.

86) 김상렬,「이옥의 '전'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홍우,「이옥의 '전'문학 연구-설화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정경,「이옥의 '전'에 관현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3.
김동판,「이옥의 '전'문학 연구」, 계명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용봉,「이옥의 '전'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9.

87) 김균태, 앞의 논문. 1977. p.52.

88) 김영주,「이옥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변모와 의미」, 경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문무자 이옥의 의식기저와 현실인식 태도」, 동방한문학회,1996.
이성휘,「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품의식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2.
배한렬,「이옥의 '전'에 대한 연구-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영남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류경옥,「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금오공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민경,「이옥 '전'의 작가의식 연구」, 충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9) 임유경,「이옥의 '전'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박준원,「조선후기 '전'의 사실수용양상-연암·문무자·담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1989.
이동근,「이옥 '전'의 야담수용 양상에 대하여」, 3군 사관학교, 1991.
이홍우,「이옥의 '전'문학 연구-설화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3.
허종진,「이옥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수용 연구」, 부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영진,「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제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이옥 문학과 명청 소품-신 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제23집, 2003.

90) 박훈기,「이옥의 심생전 연구」,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정진,「'전'의 서술양식과 소설로의 변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3.
이현우,「이옥 소품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안대희,「이옥 소품문.2」, 현대시학 제35권 현대시학회, 2003.
박현숙,「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91) 김영주, 위의 논문, 1994. p.19~44.

은 노력을 통해 삶의 고난을 해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작가의 의식을 작품화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임정현[92] 이옥의 '전'은 전통적인 '전'의 양식을 변화시켜 서사양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바, 입전 의식이 근대성에 접근했으며, 입전 대상의 폭이 확대되었고, 입전 대상에 대한 평가의 관점도 절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진정을 중시하는 상대주의적 면모를 보인다고 보았다.

김려의 '전'연구에 있어서도, <가수재전(賈秀才傳)>과 <삭낭자전(索囊子傳)>이 전기적 소설이라는 인상적인 지적[93] 이래로 이루어진 그에 관한 연구들 중, 패사소품체의 의식적인 사용과 작품의 다양성 추구 등과 같은 문학관의 추출을 위한 전초단계로 『담정유고』전체가 포괄적으로 검토[94]되어 김려에 대한 연구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 후 김려의 문학론에 관한 연구에서 김경미[95]는 김려의 문학관을 '새로운 문체인식과 야사편찬(夜思編纂)'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고문(古文)을 시대와 풍속에 적합하며, 새롭고 개성적인 문체로 이해하였으며, 이는 종전의 제도지기(製道之記)의 문학관을 벗어나 문학의 가치를 인정한 조선 후기 문학관의 한 흐름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둘째, 김려는 작가의 개성을 존중하던 새로운 문학관과 흐름을 같이하고, 셋째로 소재의 다양성과 함께 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리나라 야사의 집대성을 이루었다는 점을 특색이라 하였다. 그 후,「단량패사」에 대한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96] 등을 통해 생애 경험을 통한 작가의식의 기저 양상을 살폈다. 정병호[97]는 김려의 '전'을 서사방식과 작가의식에 따라 분석하고 그의 '전'문학을 '전'으로서의 양식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적 변모를 꾀하여 종래 보다 진일보적 면모를 보인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주목할 것은 이옥과 김려의 '전'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앞 시대의 '전'과는 다른 질적 변화를 나타냈으며, 근대 문학에 제 조건에 근접하였다고 보고, 이는 이행기 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폭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옥・김려는 양식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기도 하며, 주세의식에서도 다채로움을 보여 열, 충, 효는 물론 시정인의 삶의 모습을

92) 임정현, 위의 논문, 2000.
93)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p.161~164.
94) 임종대,「담정 김려 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95) 김경미,「담정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5.
96) 이경수,「김려의 생애와 단량패사의 문학적 성격」, 국어국문학92호, 1984.
97) 정병호,「심생전의 서술방식과 의미지향」, 문화전통논집1, 경성대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93.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비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다. 이러한 다양한 폭의 창작활동은 그들의 치밀하고 남다른 작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인접장르들과의 드나듦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체적인 현실인식과 효용론을 바탕으로 당대에 필요한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사건의 확장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묘사에 치중하고, 단순한 풍자나 비판보다는 한 발 앞서 현실 개혁의 의지를 주제를 통해 나타내고, 일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자아의 주체적인 인식의 필요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98]

이옥·김려는 가문이 한미하여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그를 발탁해줄 사람이 적었고, 또 문학성향이 소품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당시 국왕 정조의 강력한 문체반정 정책과 비어옥사에 연루되어 정권으로부터 배치됨으로써 과거 진출이 불가능했다는데서 두드러지게 문학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섬세한 감정과 참신한 시각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시대의 '정(情)의 진(眞)', '실(實)의 진(眞)' 그대로를 담으려 하였고, 시속(時俗)의 변화와 인정 풍물의 이모저모를 참 그대로 묘사하면서 근대적 문학 정신에의 가교자적 역할을 했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사대부들의 '전'작품이 위대한 인물, 봉건 지배 이념을 탁월하게 실천한 인물을 입전하여 표창한 데 비하여, 그들은 서민의 실생활과 생활 방식을 '전'에 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대성의 획득'으로 읽을 수 있겠다. 기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서민들을 입전인물로 선택한 이유는, 조선후기의 신분제 동요로 인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기인(畸人)의식을 가진 작가로서 인간의 가치는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였다. 충, 효, 열을 다룬 '전'에서도 일정부분 전통적이 '전'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이들 조차도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9]

이상에서 이옥·김려는 박지원과 함께 조선후기 당시 문학계를 이루는 각 주류의 핵심 작가로 보고 박지원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옥·김려의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98) 민경대, 앞의 논문, 1991. p.60.
99) 김동판, 앞의 논문, 2003. p.29.

근거로 제시하였다.

박지원은 북학론을 주장하면서 이용후생의 실학을 지향하며 작품에서도 자신의 실학정신을 구현하려는 논변(論辨)적 성격의 목적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비해 이옥·김려의 '전'문학은 야담이나 민담, 설화 등을 적극 수용하고 시정의 삶에 눈을 돌려 전개 양상이 논변적이지 않고 서사적으로 긴밀하고 다양한 내용과 소재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박지원은 조선후기 북학파의 대가로 당대 사회 현실을 다룬 사실적인 작품을 많이 썼고, 이옥·김려는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인지하여 당대의 또 다른 면모를 반영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즉, 이옥·김려의 '전'은 박지원의 '전'이 해결하지 못했던 제재, 구성 및 주제 의식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강한 자의식과 작가 의식을 나타낸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입전 인물이나, 사건이 훨씬 많으며, 설화·야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박지원이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들의 '전'문학은 하층민을 포함한 시정인의 모습을 소재로 삼아 인간주의적 의식을 보여 주는 독자적 문학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당시의 사회의식을 잘 반영하고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며, 박지원과 더불어 이옥·김려의 문학을 균형 있게 접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옥·김려의 문학을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당대의 사회 모순과 대응책,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세 등을 담아낸 그들의 작품을 읽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고민하여, 균형감 있고 건전한 세계관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들의 문예적 입장이 '전'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작품에 투영된 작가 의식에 비추어 입전의식, 현실에 대한 인식, 인간관에 나타나는 특성 등을 박지원은 기존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이옥과 김려의 시점과 비교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고전소설 교육, 이옥·김려 '전'문학 교육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Ⅳ. 이옥 · 김려 '전'의 교육적 가치

문학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문학 작품을 통한 학습자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수록 작품 선정에 대한 이러한 한계는 고전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충분히 나타내고 교육적 접근이 용이한 작품들로 보완 · 확충해야 한다.

고전소설은 작가 미상인 작품이 많지만, 그 중 비교적 작가가 밝혀지고 문학사적인 의의를 확인 받은 작가군으로 박지원 이후로 이옥· 김려가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이 작품을 창작했던 조선후기의 문풍을 크게 고문체와 패관소품체로 나누어진다. 질서의 회복 차원에서 정조는 문체반정을 강행하였으나 경험적 세계관을 통한 실사를 추구하면서 법고창신의 주체적인 문학관을 지향하는 경향이 실학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는 당시 조선 실생활에 맞는 문체를 구사해야 한다는 문체관으로 이미 허균으로부터 시작되어 박지원, 정약용 등에 이르러 이론의 정립과 작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동류의 문체를 답습하면서도 독자적인 성향을 구사하는 이옥, 김려 등이 또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100]

따라서 고전소설 제재의 수록 작가에 있어서의 편벽성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 체계에서의 편향성을 해소 방안으로 조선후기의 일반적 주류 문인들과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일관된 문학관을 표방한 이옥 · 김려가 현실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시류와 세태를 비판했는지,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은 무엇이라고 인식하였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의식들이 조선후기 대표적 '전'작가인 박지원과 이옥 · 김려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양상들이 갖는 상이한 점을 통해 그 교육적 의의를 살피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들 두 그룹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차이점을 검토한 후 이들 두 그룹의 특징적인 양상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추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므로 우선 시기를 조선후기로 한정하고, 대상 작품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의 전 5편을 비교군으로 하여 이옥 · 김려의 작품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기론 하겠다. 이와 같은 분류 작업은 '전'문학을 고전소설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가치별· 유형별로 분류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으로 본 이유에서이다.

---

100) 김균태, 앞의 논문, 1985. pp.119~125.

(1) 입전 대상의 확대 -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

① 박지원 ② 이옥 ③ 김려 의 작품 전반을 개략적으로 다룸.

(2)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 - 시대를 보는 공시적 안목

① 박지원 - <양반전>, <호질>, <허생전>

② 이옥 - <성진사전(成進士傳)>,<장봉사전(張福先傳)>,<류광억전(柳光億傳)>,<이홍전(李泓傳)>,<심생전(沈生傳)>

③ 김려 - <가수재전(賈秀才傳)>,<류구왕세자외전(琉球王世子外傳)>, <포수이사룡전(砲手李士龍傳)>

(3) 인간관에 대한 재정립 - 자아실현과 전문인 의식

① 박지원 -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② 이옥 - <가객송실솔전(歌客宋蟋蟀傳)>,<정운창전(鄭運昌傳)>,<신아전(申亞傳)>

③ 김려 - <이안민전(李安民傳)>,<안황중전(安黃中傳)>

1.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

고전소설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감명을 통한 자기 내면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는 모든 교수-학습 상황에서 전제가 되는 요소가 학습자의 '흥미'임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여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고전소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 작품 내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요소와 사회적 풍조 등이 흥미소가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등장 인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등장인물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일시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자아정체감과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너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인 같은 인물들은 더 이상 동일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위인들은 학습자에게 역사적으로 포장된 인물이거나 '평범함'과 유리되는 '나와 다른' 부류의 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크게

감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린다.

또 반대로, 그 대상들이 무의미한, 그저 '재미를 위한 흥미나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인물이어도 안 된다. 이는 고전소설 교육이 갖는 일차적인 목표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고전소설 작품을 통해서 선조들의 인간관·세계관을 파악하며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알고, 이를 내면화 하여 인간의 보편적 삶에 대한 체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성립해가는 것이 고전소설을 교육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전소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동일시하기에 적합하면서도 삶의 가치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모범적 요소를 갖는 인물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현전하는 박지원의 전은 10편[101]과 이옥은 『담정총서』에 23편, 김려는『담정유고』 권9에「단량패사」란 제목 아래 실린 8편과 권12의 「보유집(補遺集)」에 <김순필전(金舜弼傳)> 1편 등으로 모두 42편으로 다음과 같다.

작가	작품명	입전자 신분	내용 및 주제의식
박지원	우상전	사	신분 상 제약으로 등용되지 못하는 실태 비판
	마장전	말거간꾼	양반의위선적 우도 비판
	허생전	사	경제상과 탁상곤란만 하는 집권층 비판
	예덕선생전	인분수거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진실성 강조
	민옹전	무인	인재 등용의 모순 풍자
	광문자전	걸인	걸인의 순수한 삶을 통한 진실성 강조
	김신선전	민	현실 도피적, 소극적 생활 태도
	열녀함양박씨전	민녀	허례적 열녀의식 비판
	호질	사	유자들의 위선과 정절부인의 가식 비판
	양반전	사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무능한 양반 풍자
이옥	상랑전	민녀(최씨의 처)	개가금지 비판
	정운창전	민	능력에 따른 인간 가치 의식(바둑)
	신아전	검공	신분보다 인간의 가치 중요
	열녀이씨전	사인처	열녀·수절에 대한 재인식
	장봉사전	봉사	사치와 낭비로 흘러가는 세태 비판

101) 원래 박지원 소설은『연암집』본집에 <열녀함양박씨전>이,『열하일기』에 <허생전>과 <호질>이 실려 있고,나머지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양반전>, <김신선전>, <광문자전>, <우상전>, <봉산학자전>, <역학대도전>은「방경각외전」에 실려 있으나, <봉산학자전>, <역학대도전>은 현존하지 않아 10편을 박지원의 전으로 보고 있다.

	성진사전	사	지배층의 무능으로 인한 백성고 폭로
	가객송실솔전	가객	능력과 인간성으로 보는 인간의 가치(가)
	포호부전	숯장수 아내	호랑이로 표상된 세계 장벽(지배층)과 대결
	수칙전	궁녀	맹목적 수절 비판
	차최이의사전	무인(의사)	대청항쟁
	생열녀전	사인처(유생의 처)	열녀·수절에 대한 재인식
	문묘이의복전	문묘 수복	종의 의리
	부목한전	승려	삶에 대한 초탈과 예지 능력 자
	류광억전	사	과거제의 폐단 고발
	심생전	사	신분제의 폐단, 남녀의 진정, 비극적 사랑
	신병사전	죽은 병사	진실을 믿지 않는 세태
	소기마전	말	입전하지 못하는 자아 좌절감 이입
	남령전	담배	근심 많은 세상 풍자
	각로선생전	족집게	오래 살고자하는 풍조와 허례 고발
	장복선전	은고지기	어려운 남을 돕는 의협심
	이홍전	사기꾼	경제적 폐단 고발
	협효부전	촌인(효부)	시부모에 대한 효
	최생원전	생원	무당의 혹세무민과 미신타파
김려	이안민전	사(서자)	과학을 경시하는 풍조, 인재등용 폐단 고발
	포수이사룡전	민(무인)	대청 항쟁, 무인의 의리
	안황중전	의원	의술을 경시하는 풍조, 당쟁 비판
	가수재전	상인	당쟁의 폐해 비판. 운둔자적 처세
	류구왕세자외전	왕세자	집권계층의 폭정과 비리
	삭낭자전	걸인	당쟁의 폐단 비판. 겸손의 미덕(바둑)
	장생전	걸인	인간 존엄성의 회복
	한숙원전	궁녀	궁녀로서의 의리와 기강
	김순필전	사(서손)	인재등용의 모순점 고발(서얼차별 비판)

박지원(1737~1805)이 입전한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광문자전>등 구전(九傳)[102]에는 미치광이, 인분수거꾼, 거지, 신선(神仙), 역관(譯官) 등으로 입전

102) 연암의 작품에 대해 전기로 볼 것이냐, 소설로 볼 것이냐는 그 동안 학계의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왔다.
연암의 작품을 소설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김태준은 "박지원의 <우상전>,<김신선전>,<민옹전>,<광문자전>,<예덕선생전> 등은 대개 실제 인물의 전기이면서 전통적인 전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전의 양식을 표방하기는 하면서도 그 지향점은 소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하였고(김태준, 「고소설과 전」,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p.104.), 연암의 작품에 대해 이가원은 '한문소설', 장덕순은 '한문단편소설', 이우성은 '한문단편', 이재선은 '한문단형서사문학'이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 모두 박지원의 작품을 소설로 인정하는 명칭들로

인물들이 조선전기까지의 '전'에 비하여 비교적 확대되어 있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최하층 인물들이 대상이 됨으로써 전대의 의술(醫術)·중인들에서 이제는 대상이 서민들로 바꾸어졌다. 박지원의 입전 동기와 구전의 성격을, "세상의 벗 사귐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을 쫓았다. 그리하여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홉 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풍자하였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개 소리가 들어있다."[103] 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조선전기의 '전'문학이 특정 인물의 행적이 남의 모범이 되어 이를 기릴 만한 경우나 기이하거나 처절한 삶이 일상적 평범함을 넘어 남의 이목을 집중시킬 경우 그 공적을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포폄함으로써 가치 평가를 확보하는데 입전 동기를 두는 것에 비하여, 당대로써는 이러한 입전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지원의 시정인들에 대한 형식적 관심과 우호적 태도를 보다 심화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동류 의식적 시각으로 '전'을 입전한 인물은 이옥(1760~1815)과 김려(1776~1821)이다.

이옥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입전함으로써 그 관심의 대상의 폭을 확대시켰다. 작자의 입장에서 '전'으로 꾸밀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면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입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서민들 시정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그러한 서민들의 삶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식에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전 대상 중 '양반' 출신으로 추정되는 <성진사전>,<최생원전>,<류광억전>,<심생전>이 있으나 매우 한미한 집의 자손이거나 몰락한 양반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양반'의 신분임에도 생활에 있어서는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이 입전한 인물들을 신분 유형 상으로 구분해서보면, 시정인(市井人)과 전문가로 바둑계의 국수(國手)로 명성을 얻은 정창운, 당대 명창(名唱)으로 양반층과도 깊은 교분이 있었던 송실솔, 칼을 잘 다듬는 식견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볼 수 있다.(이동근, 「전 양식의 역사적 전개양상」,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10.)
본고에서는 고전소설 교육의 제재로써 소설과 전기문학의 과도기적 성향을 띄는 '전'문학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03)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박희병 옮김, 1998. p.21.

박학다식한 신탄재, 남의 집 잔치음식을 맛보고 집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장봉사, 서민에 대한 배려와 의협심이 강한 장복선, 시정의 내로라하는 사기꾼 이홍, 지혜와 기지로 호랑이를 무찌른 숯장수 아내가 있다.

이들 시정인과 전문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입전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자세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인식, 세태 고발, 서민층의 능력과 인간성에 대한 재인식하는 의지로 이해된다.

입전 대상이 열녀(烈女)인 경우, 신분은 민녀에서 사인처(士人妻), 궁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남편의 폭력과 가족의 박대, 친정의 개가(改嫁) 강요가 투신자살로 이어지는 상랑, 지아비가 죽은 후 3년 동안 모든 뒷일을 처리한 후 자결한 이씨, 왕의 은총을 입고 출궁한 후 30년 동안 칩거(蟄居)한 수칙, 남편이 종기(腫氣)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자신의 살을 베어 구워 먹인 신씨, 개가를 강요받았으나 도망쳐 나와 돌아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으나 시어머니 봉양에 지극하여 호랑이까지 감동시킨 시골 아낙이 이에 속한다.

이들 열녀들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구속적인 성향의 지배층 윤리 의식을 비판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을 성립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여인들을 윤리적 전범(典範), 수절(守節)의 본보기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104] 윤리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고발하고 있으며 수절이라는 윤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당대 봉건 사회의 윤리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옥은 봉건 사회에서의 윤리적 열(烈)은 참이 아니며, 사랑에 의해서 생살까지도 베어내는 열만이 참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열녀·열부(烈婦)로 평가를 받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수절을 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악습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듯 이옥은 종래의 열녀관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윤리적 도덕의식이나 종래의 열을 타파하고 자신의 의지와 진심에 의한 열이 참다운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열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를 제시하였다고 보여 진다.

의인(義人)과 기인(奇人)으로 입전된 인물로는 병자호란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묘의 제구(祭具)와 성현들의 위패(位牌)를 보존하여 행재소(行在所)로 옮기고 지킨 정신국과 박잠미, 정묘호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차예랑과 최효일, 귀신으로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자 한 신병사, 절에서 식량이나 땔감

104) 조영신, 앞의 논문, 2003. p.35.

등을 마련하는 직분이지만 미래를 예언하고 초탈한 부목한이 있다.

이들의 입전은 낮은 지위에 있지만 봉건 윤리로서의 충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충을 실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의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정의를 지향하고 주체적인 자각과 선택에 의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105] 또한, 이옥은 비현실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기인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는 이옥의 세계관이 후기에 와서 이상주의적 세계관으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서의 한계와 갈등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이다. 즉, 객관적 현실 세계에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계를 인식하고 기인의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자의식의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사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고 다니던 말이 죽자 그 정을 아쉬워하며 쓴 <소기마전(所騎馬傳)>, 담배를 의인화한 <남령전(南靈傳)>, 족집게를 의인화하여 허례에만 편중하는 세태를 풍자한 <각로선생전(却老先生傳)>에 다양한 대상을 입전하였다.

사물의 입전은 사람이나 사물이 동성(同性)이므로 사물의 이치를 알면 사람의 도리를 규명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이원론적 세계관(二元論的 世界觀)[106]의 반영이다.

「단량패사」와 「보유집」에 입전된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김려는 소수집권 권력층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김려는「단량패사」에서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당쟁의 혹독함과 아울러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신분제의 질곡으로 능력은 있으나 쓰일 수 없는 모순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절계(節季)와 열의 문제를 통해 집권층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107]

김려의 '전'에 입전된 인물의 부류를 보면, 양반계층으로는 정승 문정공의 아들이나 어미가 미천한 서자(庶子)로 과학자로서의 재능과 기질이 다분하였으나 널리 쓰이지 못한 이안민, 지체가 낮아 그 재능과 뜻을 펴지 못한 용행, 부왕(父王)을 구하러 왜국에 가다가 변을 당한 류구국왕세자, 양가(良家)의 자손으로 명나라를 토벌

105) 배한렬, 앞의 논문, 2005. p.22.
106) 김균태는 이옥의 사유의 태토를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각물을 통해 생활의 철학을 추출하는 즉물적, 현실적, 실증적, 합리적 형태"라고 보았다.(김균태, 앞의 논문,1997. p.48)
107) 허준구,「담정 김려의 시세계-그 생애 정에 따른 시경향-」, 성균관대 박사, 2001. p.11.

하는 청군 대열에 징발되었으나 명에 대한 충의를 지키다 죽은 이사룡, 신의가 있고 정직하며 불의에 대한 용기가 있는 궁녀 보향, 걸인으로 생활하나 바둑을 잘 두어 양반들에게 인정을 받는 삭낭자 홍[108]이 있다.

시정인과 전문가로 입전된 인물로는, 의학(醫學)이 뛰어나지만 그의 의술(醫術)을 시기하는 인물로부터 화를 당한 안찬, 스스로의 이름을 '(앉아서 하는 장사치 賈)고'라고 말하며 시문을 잘 짓고 은둔자적 기질을 가진 고수재가 있다.

입전 인물들을 보면, 출생 신분적으로는 양반에 가까우나, 그 세력이 한미하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이거나 시정에 머물면서 자신의 재능을 내세우지 않고 은둔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현실적으로 집권층과 거리가 먼 지위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전인물의 형상은 김려가 보고 들었던 당쟁의 폐해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사회 집권계층의 모순과 퇴폐적 흐름에 대한 비판의식의 투영이라고 하겠다. 뛰어난 재능과 의리, 올바른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신분적 제약을 받거나, 지배층의 권력 남용에 희생을 당해 불우한 생을 살아야 하는 인물 군상의 표출을 통해 사회적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옥의 '전'에 입전된 인물들은 대부분 현실에 존재하며 생활하는 벙어리, 봉사, 걸인, 사기꾼, 점쟁이, 무당, 숯장수, 산골 아낙네 등 시정의 인물들 내지는 몰락 사대부이다. 이렇듯 주로 하층민을 중심으로 입전한 것은 작가가 그만큼 시각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정상적 인물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기존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풍자적으로 고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려의 '전'에 등장하는 입전인물들은 하층 신분적 성향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 한결같이 뛰어난 행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그의 '전'의 큰 틀이 신분적으로 열세이나 행적이나 행위가 남다른 사람들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를 비판하는데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관되게 하층인물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그들의 삶을 전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고전 문학의 본질은 가치 있는 체험의 세계라는 점에 있다. 고전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삶의 양식과 현실 대응 태도를 접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

108) 김려는 <삭낭자전>의 홍을 "이름있는 가문의 자식으로서 문장도 잘하였으나 집에서 화를 만나 세상을 피해 다닌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아마도 근사할 것 같다."고 논평하였다. (오희복 역, 『김려작품집』,문예출판사,1990.p.41. 재인용) 이러한 논평을 근거로 삭낭이 양반 계층의 신분을 갖는다고 보았다.

을 갖게 되고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를 동반하게 된다. 사실상 학교 내·외적인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그 정도가 우려를 넘어선 것은 비단 요즘의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학교 폭력은 날로 연소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양상이나 빈도, 강도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실정이다. 그 원인에는 개인과 가정 내적 요인, 사회적 환경에도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교육에서 학습되어야 할 인성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전 문학 교육으로서의 고전소설 교육은 단순한 '고전(古典)'으로써의 위치에서 벗어나 현실의 삶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형성해가는 방법의 표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옥·김려, 두 작가의 '전'은 시정 공간의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각기 개성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여 새로운 가치 질서 및 세계관을 추구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09] 학습자들은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인물군상들을 통해 이 시기에 입전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들이 보인 다양한 현실 대응 양상을 통해 그 행동적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개성적이고 다양성이 부각되는 입전 인물들이 삶의 모습에서 인간의 내면적 본질이나 심리적 갈등을 보면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생활의 문제나 미래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계기가 되는 배려를 이옥·김려 '전'작품을 통해 경험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터득할 수 있다. 작품을 속의 등장인물을 살피고 삶의 대응 양상에 대해 고민해봄으로써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독자성을 용납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로써 의사소통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으로써 개인 내적 갈등이나 타인과의 갈등, 사회적 갈등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학습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작품을 즐기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는 문학교육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조선후기 이옥·김려 '전'문학의 다양한 입전 인물 군상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생각

109) 김균태, 앞의 책, 1986. p.168.

해보게 하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계기가 된다.

2. 시대를 보는 공시적 안목

인물들이 소설 속에서 행하는 행위는 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갈등, 모순, 비리 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작품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든 작가가 추구하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고전소설 교육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고차원의 기능을 발휘하여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불어 작품 세계에 몰입하여 그 안에 녹아있는 다양한 경험과 감동을 얻게 해야 한다. 문학은 우리들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고전소설 교육에서는 작품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점, 삶의 모습을 파편적이 아닌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으로 파악한다는 점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총체적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생활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사람과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렇듯 고전소설 교육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 구현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조상들이 살았던 사회 현실과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전'문학은 우리 민족 문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문학을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삶과 결부된 사회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 진지한 고민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먼저 박지원의 '전'문학을 살펴보면, 박지원의 '전'은 등장인물들을 전형적 인물들로 형상화시켜 당 시대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110] 이러한 입전 인물들의 특성이나 성품, 행위 등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모순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적이 폐단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제7차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중

110) 윤원식,「조선후기 한문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실학파를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 1988. p.68.

심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입전인물의 형상은 <양반전>,<호질>, <허생전>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양반전>의 정선양반은 권력층에서 밀려나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양반 아닌 양반이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다만 양반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글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양반이다. 사실상 정선군수가 작성한 문서 속에 들어있는 양반의 횡포도 부리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생활에 대한 어떤 호구지책도 세우지 못하는 당시의 무기력한 양반의 전형이라 하겠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신분 혼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한정된 관직을 일부 벌열계층(閥閱階層)이 독점하고 다수가 집권층에서 밀려나 천민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이자, 물질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양반으로써 도리나 자존심을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매관행위의 자행으로 신분제의 동요가 크게 일었던 시기의 양반이다.

<호질>의 북곽 선생은 당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선비이자 유학자이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일 만권이고, 구경(九經)의 뜻을 부연(敷衍)해서 책으로 엮은 것 일만 오천권이나 되어 천자(天子)가 그의 의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諸侯)들은 그의 이름을 사모했던 선비이다. 그러나 전체를 명확하게 꿰뚫어 그 이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범에게는 한낮 가증스런 위선자일 뿐이다. 야밤에 동리자(東里子)라는 과부에게 수작을 걸다가 그녀의 배다른 아들들에게 쫓기어 똥구덩에 빠지고 범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북곽은 범에게 갖은 아부를 다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자에게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북곽의 성격을 극명히 보여준다. 더욱이 목숨 구걸이 인간적인 솔직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부에 의해 위급상황을 벗어나 보려는 허위적이고 속물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진실을 꿰뚫어보는 범이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길에 엎드려 있는 북곽을 이상히 여겨 농부가 물었을 때, 북곽이『시경(詩經)』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여 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독자에게 그의 속물적 허위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즉,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사대부 선비계층의 속물적이고 허위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허생전>의 이완은 조선후기 사회의 높은 벼슬아치이다. 그러나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처신하지 못하는 군상의 대표로, 이들은 허울 좋은 북벌론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그 것을 이행해 나갈 의지나 능력은 없다. 단지 자신들의 권위와 영달을 유지하기 위한 보신의 수단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당시 조선후기 사회에서 국가 관직을 독점한 벌열들의 사유방식과 정권 유지책을 이완이라는 인물로 정형화하면서, 정작 실생활에 아무 필요 없는 예법만 강조하며 제대로 된 처세를 하지 않는 당시의 집권자들의 위선과 무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박지원은 위의 작품들을 통해 조선후기 지배층을 '정선양반, 북곽 선생, 이완'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정형화하여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이는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써 자기성찰적인 반성이자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사회적·체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조선후기 사회의 혼란,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란상들이 비단 양반사회에 한정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움츠려 있던 서민 문화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정의 삶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조선후기는 임·병 양란으로 왕권은 실추되고 경제윤리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극심해져 부농들의 기업형 영농이 등장하여 광작(廣作)에 주력하게 되고, 종래의 직파법(直播法)을 이양법으로 바꾸고 수리시설과 농기구의 개량으로 수확은 배로 늘어났으나 이 과정에서 축적된 부는 일부에서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화폐경제의 발달로 국가의 조세(租稅)나 지세(地稅)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시장을 통해 물품을 화폐로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호상(豪商)이 등장하여 부를 축적하고 자본을 증대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신흥 상공인들까지도 농지를 독점함으로써 농민들은 점차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농지에서 유리된 거지나 도적이 되는 유민현상(遊民現像)이 일어났다. 한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자 부유층은 사치와 낭비의 풍조가 심해졌다.

이옥의 작품에는 특히 시속의 타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지배 계층의 부도덕에 대하여 철저한 유가적 도덕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에, 피지배 계층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는 반유가적 도덕관을 반영하여 오히려 관심과 흥미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세계에 잠재된 반유가적 도덕관에 의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질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통해 자아로의 회귀와 현실 세계로의 지향이라는 대립적인 의식의 분열을 끊임없이 일으킨 인물임을 알 수 있다.[111]

이러한 이옥의 시대관은 자신의 작품에 당시의 소외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발현하고 있다. 학습자는 '전'문학이 인간 삶의 한 양식임을 이해함으로써 고전소설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서 문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옥 '전'은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데, 그 중 <성진사전>과 <장봉사전>은 입전 인물을 통해 세태의 각박함과 어지러운 사회상을 고발 비판하고, <류광억전>과 <이홍전>은 입전 인물 자신의 도덕적 타락과 집권층의 허위적인 모습을 다룬 것이다. 그리고 <심생전>은 신분적 갈등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후기 민중들은 집권층의 탐욕과 계속된 흉년, 홍수, 기근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나갔고, 농토의 황폐화로 인하여 집단적인 이농현상(離農現像)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일부 고용 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하지만 대부분이 생활의 궁핍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강도, 절도 및 살인과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112]

<성진사전>은 이러한 어지러운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속이 날로 사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상주(尙州)에 성희룡이라는 사대부가 있었다. 집이 애초부터 넉넉하여 식객이 많았다. 사비가 식객의 반(飯)을 차려 나가는데 돌연히 거지가 나타나 날쌔게 채어갔다. 이를 성진사는 개의치 않았다. 거지가 다시 그릇을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그것도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진사는 거지에게 그릇을 팔 것인지 묻고 1500냥을 주고 샀다. 거지는 주인의 인품에 탄복(歎服)하여 자기가 죽은 아이를 갖다 놓고 송사(訟事)를 벌이려고 했으나, 성진사의 인품에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이 여겨져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성진사전>은 조선후기 혼란한 시대의 백성들의 비참한 삶과 인간성 상실을 다

111)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창학사, 1986. pp.19~28.
112)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pp.143~150. 참조.

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나 양심이 실종된 세태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이러한 세태를 양산해 낸 사회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엔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낸 통치계층의 무능과 체제의 모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봉사전>은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의 풍조를 형상화 하고 있다.

> 내가 남 몰래 깊이 걱정하는 것은, 온 세상의 담박하던 것이 날로 달콤해지고, 거칠던 것이 날로 차지게 되고, 풍성하던 것이 날로 얍삽해지고, 아담하던 것이 날로 사치에 넘쳐서, —중략— 또 음식 하나가 이럴진대 의복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과 집이 점점 커지는 것과 음악이 점점 음란해지는 것과 시중드는 여자들이 점점 예쁘게 꾸며지는 것을 같은 부류로 미루어 알 수 있지요.[113]

장봉사는 양반들 집안의 제사나 생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들러, 나오는 음식을 보고 그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걸인이다. 장봉사라는 개인의 기이한 행위나 사상을 입전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입을 빌어 일반적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백성들은 빈곤과 궁핍으로 시름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부유층은 허영에 들떠 낭비와 사치를 일삼는 소비양태를 고발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 눈이 멀고 사치와 허영 된 삶에 치우친 삶을 사는 지배층이나 부의 축척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일부 졸부(猝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옥은 서민들의 삶을 한번쯤 돌아보며 근검·절약하는 삶을 추구하고 더불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정과 나라가 부강해지고 오래 공존한다는 것을 당시의 시류를 들어 질타하고 있다.

다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한 작품을 살펴보겠다.

<류광억전>은 조선후기 과거제도의 문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다.

---

113) 역주 이옥전집 권2, 앞의 책, pp.241~242.

류광억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과시(科試)를 잘 하였다. 사대부 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지체가 낮으며, 시골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스스로의 뜻은 이루지 못 하고, 이를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과시의 대작(代作)이 유명해지자 검시관(檢試官)이 그를 시험하였다. 결과는 돈 받은 액수에 따라 등급에 맞는 글을 지어 주었다. 이 일로 인해 소환(召還)을 당하게 되자, 스스로 잘못을 두려워하여 자결하였다.

부와 권세를 가진 일부 집권층이 자신들의 신분유지를 위해 돈으로 남의 능력을 사서 과거에 급제하는 부조리한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하는 동시에, 지조와 청렴을 중히 여겨야 할 선비가 양심과 정신까지 팔아먹는 행위를 개탄하고 있다.

이옥은 이 작품을 통해 관의 기강해이와 과거제의 문란, 지배층의 이기주의, 선비의 정신적 타락을 질타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는 과거시험의 기회조차 없으나, 능력은 없으면서 과시를 사서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제도적 모습을 통해 그러한 무능한 통치계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라와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깊게 통찰하고 비판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사회는 상공업의 발달로 경제윤리가 정립되기도 전에 윤리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갔다. 그 결과 이익추구를 위해서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이홍전>은 이런 시정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 서울의 서대문에 큰 시장이 있는데, 이곳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가짜로 말하면 백동(白銅)을 가리켜 은이라고 주장하고, 염소 뿔을 가지고 대모(玳瑁)[114]라 우기며, 개가죽을 가지고 초피(貂皮)[115]로 꾸미는 따위이다.[116]

작품의 도입부에서 당시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속고 속이는 시정의 문란상과 금전 앞에서 비굴해지는 풍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홍전>은 네 가지 사기 일화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호(富豪)나 탐욕스러운 기생, 아전(衙前), 승려들은 무분별하게 부를 추구하다가 사기를 당하지만 이홍의 사기는 오히려 재

114) 대모(玳瑁):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거북이의 일종으로 그 등껍데기를 대모 또는 대모갑(玳甲瑁)이라 하여 공예·장식품으로 귀중하게 쓰인다.(역주이옥전집 2. p.268. 재인용)
115) 초피(貂皮): 담비 종류의 모피의 총칭.(역주이옥전집 2. p.268. 재인용)
116) 역주 이옥전집 권2. pp.266~267.

미있게 형상화 되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이옥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기꾼은 온 천하를 속이고 임금·정승, 심지어 백성까지 속이는 사람이다. 작은 도둑은 몸을 망치고 큰 도둑은 사회를 망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한 사회적 모순, 즉 큰 도둑은 바로 지배층으로 이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을 양산해 내는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를 이홍이라는 사기꾼을 입전하여 남을 속여야 잘 살 수 있는 세태를 표상함으로써 지배층의 안일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조선후기 사회는 신분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대다. 서민층에 들지 못하면 몰락 사대부 신세가 되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신분의 하향조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반면에, 중인층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상향조정으로 신분층을 이동하였다 한편 서민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지만 아직 정착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존의 전통적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인간적 삶을 개척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의식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쳐 비극적 종말을 고(告)하기 마련인데 <심생전>은 바로 18세기 사회적 분위기가 낳은 표본이다.[117]

서울 사족의 아들로 태어난 심생이 종로 네거리에서 우연히 홍보(紅褓)에 쌓여 업혀가는 어떤 처녀를 보고 사랑에 감정을 품었다. 처녀의 뒤를 쫓아가 그녀의 집을 확인하고 이웃 할멈에게 물어 그 집안과 처녀의 처소(處所)를 알아냈다. 심생은 30일 밤을 담장을 넘어 처녀가 거처한 방 앞에서 있다가 돌아가기를 지속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어 동침을 한다. 심생의 부모가 이를 눈치 채고 북한산의 절로 공부하러 보냈다. 처녀는 심생을 연모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하여 하직하는 편지를 심생에게 보내고 죽었다. 심생도 슬퍼하여 문을 버리고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금오랑(金吾郞)에 이르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줄거리에 보듯, 두 남녀가 신분 차이 때문에 온전히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애정을 다룬 것이다. 심생의 신분은 사대부이나 처녀는 호조계사(戶曹計士)의 딸이니 중인이다.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신분제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처녀의 죽음은 현실의 제약에서 빚어진 좌절이 아니라 항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여 진다. 처녀가 심생에게 보낸 편지의 사연 속에 결혼을 하였음에도 시댁 식구를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아녀자로서

117) 김균태, 앞의 책, 1986. p.183.

한 번도 맘 편히 서방을 봉양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대우 받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항거이다.

이옥은 <심생전>에서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같은데 어느 한쪽이 천시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간에게 귀한 것은 각자 지닌 정신이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옳지 않은 현실에 수긍 할 수 없었던 처녀는 죽음으로 항거하고 심생 또한 문(文)을 버리고 무(武)에 급제하나 요절함으로써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김려의 <가수재전>은 18~19세기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계급 분화가 급속히 진행된 정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입전인물은 어떤 출신이며 어려서 어떻게 자랐으며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항상 적성현(積誠縣) 청원사(淸源寺)에 거(居)하였고 마른 물고기를 팔며 살아갔다. 남들이 혹시 그의 성을 물으면 성은 천(하늘 天)이고 이름은 지(따 地)이며 자는 현황(가물 玄, 누르 黃)이라고만 하였다. 그래도 자꾸 물으면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 성이 고(팔 賈)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태도를 보며 '고수재'라고 불렀다.

고수재는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기 위해 건어(乾魚)를 팔은 돈으로 술만 마시며 기이한 행적을 일관했다. 특히, 그가 청원사에서 수학하는 유생들을 보고 비웃어 빚어진 일화는 그의 유학자들과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宦路)에 나가 보다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비방하며 암투(暗鬪)를 벌이는 모습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그 당시의 유사들의 목표가 수신(修身)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여 권세와 부귀를 누리기 위한 방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생(諸生)들의 권(勸)에 따라 고수재가 지은 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풍류를 즐기라는 내용으로, 현실 도피적 사고의 일단으로 당시의 혼란스러운 세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고수재가 몹시 취해 복어를 가져다가 석가여래부처의 상 위에 놓은 일화를 통해 김려의 비판의식이 불교로까지 확대 된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김려는 불계의 형식적 폐단을 중들과의 대립 양상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류구왕세자외전>에서는 정권을 잡은 집권층의 악질적 행위와 그 폐해의 심각

성을 그리고 있다.

류구국 세자가 왜국에 잡혀있는 부왕(父王)을 방면(放免)하러 가다가 풍랑을 당해 표류하여 제주도에 정박하였는데 제주 목사(牧使) 이란이 그의 보배를 탐내다 실패하자 결국 류구국 세자를 죽이고 국경을 침입한 도적으로 조정에 보고한 사건을 입전한 작품이다.

제주 목사 이란은 당시 정치가들의 패악하고 부패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인물들의 자손들이 현세에서도 영귀하고 잘사는 사회적 모순을 들어 비판하고 이러한 일화는 한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현상의 진실을 가려 사회적 부재까지 초래하는 폐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포수이사룡전> 또한, 탁상공론만 일삼는 관리자들에 대한 불신과 진정 국가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위정자들에 되물어, 그들의 무능력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포수이사룡전>의 주인공 이사룡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기 위하여 조선에 원병(援兵)을 청하였을 때 청나라 군으로 입정하여 싸웠다. 그러나 명의 옛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일부러 명의 군사와 싸우지 아니하고 고의로 명나라 군사에게 유리하게 하여 청의 군사가 성을 함락하는 것을 방해하다 죽은 인물이다. 김려는 이 작품을 통해 나라의 국난을 당해서는 실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보다 서민들이 항거하고 싸웠음을 이야기하며, 권력을 잡은 양반 사대부들의 안일한 태도와 비겁한 의식을 질타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옥·김려 '전'에 반영된 조선후기의 사회적 문물과 제도, 풍습 등을 통해 과거의 전통을 인식하게 되고, 전통의 가치를 좀 더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소재로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인간적 고뇌에 동참해보고, 작가의 입장에서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며, 이를 통해 작품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교육적 체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내용과 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하고, 동시에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까지 그 가치의 명맥이 이어지는 고전소설의 교육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전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정체감과 자부심을 형성하게 된다.

위의 작품들을 통해서 문학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니라 무언가 사회와 관련되는 이야기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에 그려진 현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의 모습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의미를 알아보는데 가치가 있다.

즉, 두 작가의 작품에 내포된 조선후기의 사회·문화·경제적인 변동기적 흐름을 인식함으로써 현재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또한 넓힐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는 전기의 안정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던 신분제가 흔들리고, 지배층의 정치적 분영 양상이 가속화 되며, 도시상업 경제의 발달에 따른 평민들의 부의 축적과 빈부 격차, 윤리적 혼동 등 전반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을 바라보는 작가, 즉 작품에 투영된 그 시대의 지식인들의 시각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현재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다양하고 폭 넓은 시각으로 조망하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그린 '작품'에서 벗어나 현대와 연속선상에 있는 역사적 시기의 산물이고 증언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전통과 미래의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상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목표에 부합된다. 즉, '문학 작품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두 작가의 '전'작품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고 작품에 반영되는 현실이 어떠한지, 그 현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옥· 김려의 작품들은 조선 후기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 현실에 대하여 두 작가가 고민하고 느끼는 바가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표출되어 있으므로, 문학으로서의 고전소설과 사회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3. 자아실현과 전문인 의식

자아실현이란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을 자아가 자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아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확신, 결단과 용기, 인내심이 필요하다. 즉, 시정인이라 할지라도 사계층보다 더 높은 정신적 경지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이를 몸소 실현하고 추구함으로써 사계층보다 우위에 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척해 가며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노력하는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신분이 낮거나 특이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을 입전한 것은 그들의 특이한 행위가 사회 변화의 혼란함 속에서도 사회에 귀감을 주어 인간 평등의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신분보다는 신분이 낮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를 지닌다는 도덕성으로 판단했을 것이다.[118] 이러한 입전 인물들은 시대 변화와 함께 개인적인 자아에 눈을 뜨고 자신의 삶에 가치를 찾으며,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층민으로 작가는 그들의 인간성과 자존심을 인정하였다.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시정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인간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성 자체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수용하여 이러한 작품들을 접하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박지원은 상대주의적 사상에 의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결코 조롱(嘲弄)과 질시(嫉視)의 대상으로 보지 말며 개체 존중의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을 입전하여 진실한 가치를 발견해 주고, 그 진실 된 가치로 인하여 양반세계의 허구적 모순 세계를 발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체 존중 사상에 의해서 입전된 인물전이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이다.

광문은 수표교(水標橋) 밑에 걸인이며, 추하게 생긴 인물이다. 그러나 거렁뱅이 아이가 죽었을 때, 약방 부자의 일꾼이었을 때 의로운 행동을 묵묵히 실행함으로써 입만으로 의(義)를 표방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양반 사대부들 보다는 뛰어나며, 진실로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광문이 나이 40이 넘어도 총각으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들기를 광문에게 권하였을 때, 미색(美色)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바이지만 비단 남자만 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역시 그러하다.

118) 배한렬, 앞의 논문, 2005. p.52.

그러니 나처럼 누추(陋醜)하고 못 생긴 자가 장가를 가는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즉, 박지원은 신분에 의해서 입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적이 기이하고 민중의 삶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한 인물들은 입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박지원은 인분을 져 나르는 예덕선생을 입전하였다. 선귤자(蟬橘子)의 벗 중에서 예덕선생이 있었다. 그는 종본탑 동편에 살면서 날마다 똥을 져 나르는 일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으로 이름은 엄행수(嚴行首)이다. 어느 날 선귤자의 제자 자목(子牧)이 자기 스승이 똥 푸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자, 그는 불만을 토하면서 문하(門下)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때 선귤자는 사람을 사귀는 근본 이치를 밝혔다. 즉 시정지교(市井之交)를 원망하는 자목과 도의지교(道義之交)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선귤자의 대화를 통해서 똥을 져 나르는 엄행수를 본분에 충실한 선비의 표상으로 삼았으며 그를 스승이라고 칭하는 연암의 태도에서도 개별주체사상(個別主體 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박지원이 이런 서민 계층에 의미를 두고 입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거울삼아 양반계층에게 질타를 하기 위함으로, 즉 근본적인 입전 동기는 우도(友道)나 성실에 대한 적극적 옹호라기보다 신의를 상실한 사계층의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야한다. 이런 점에서 시정 인물들을 입전시켜 이들보다 못한 사계층을 각성시키고 지배체제를 더욱 곤고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의식'이 강한 작품들이다.

그에 비해 서민계층을 바라보는 이옥·김려의 시각은 박지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처럼 서민인물을 통해 사대부층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민계층을 별개의 독립적인 사회집단으로 보며 그들의 행동에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서민들의 특이한 행동들을 조선후기의 시정공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위로, 시대적 흐름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그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존재가치를 강조했으며 시정인들의 행동과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재능과 인간성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입전 인물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 비록 중하층 인물들이 신분은 낮을 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재인식하면서 인간의 긍정성을 수용한 것이다.

조선 영조 때부터 왕실이나 양반관료뿐만 아니라 서민에 이르기까지 음악 및 그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천시 당했던 가(歌)·악(樂)·화공(畵工)들에 대한 대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이들 스스로도 가객(歌客)·금객(琴客) 등으로 자칭하여 전문가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서, 생계 수단으로써의 예능이 아니라 예술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기 이르렀다. 이로써 자연히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대부와 유대강화를 통해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반상(班常)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고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능인들이 등장하였다.

<가객송실솔전>은 음악을 하는 인물을 입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가객 송실솔(宋蟋蟀)이 오랜 수련 끝에 득음(得音)의 경지를 얻었다. 그의 소리는 교묘하기가 지극하여 당시 서평군 표(標)가 항상 가까이 두고 지냈다. 한번은 서평군(西平君)이 실솔에게 자신의 거문고 반주가 조화를 잃도록 창을 해보라고 하자, 그는 후정화(後庭花) 곡조로 취승곡(醉僧曲)을 불러 서평군으로 하여금 거문고 반주의 조화를 잃게 하였다. 그는 당시 이세춘, 조오자, 지봉서, 박세첨 등과 함께 서평군의 집을 출입하였다. 그들이 서평군의 집을 출입하여 놀기를 20여년 하다가 서평군이 죽자 이들도 몰락하고 늙어 죽었다.

당시는 음악을 긍정하면서도 음악을 하는 사람은 천시하였다. 그나마 궁중 음악은 예악(禮樂)으로 중히 여겼으나, 그를 연주하는 악공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노래인 민요를 부르는 사람을 가객 또는 광대고 부르며 역시 천대하였다. 그러나 위 작품에서 서평군은 실솔을 비롯하여 이세춘, 조오자, 지봉서, 박세첨 등과 절친한 관계로 사귀었다. 이들은 모두 음악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서평군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송실솔이나 이세춘 같은 예능인들을 자신의 생활을 보다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반자로 여겼다. 예능인들 또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고 인간적으로 진솔하게 대접하는 예술적 후원자가 필요했다. 경제적 후원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인간적 대화로 흉물 없이 대해주는 그들 사이에는 신뢰를 넘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존재하였으리라 본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당대 신분 질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롭고 친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그 시기에 가객들의 신분이 상승되거나 신분 질서가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시기의 양반 지배층 모두가 이들을 능력만

으로 인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다. 다만 이러한 예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나아가려는 태도를 추구하였던 것과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던 문사(文士)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사람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정운창전>은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의 한 유형인 바둑의 가치를 인정한 작품이다.

정운창은 병을 앓고 난 뒤 오직 바둑에만 정진하여 당대 고수(高手)들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에 대해 이옥은 "바둑의 솜씨에는 천재(天才)와 인공(人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정운창의 경우는 어찌 인공적으로 된 바둑이라고 하겠는가!"[119]라고 하여 그의 바둑의 기품(氣稟)이 천재적임을 탄복하였다. 당시 사회에서는 바둑을 잡기(雜技) 정도로 인식하여 천시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인생 목표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면서 입신양명을 이루는 것이므로 일생을 두고 바둑에 정진한다는 것은 선비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옥은 정운창을 들어 바둑도 문화의 하나로 보고, 또한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제 일인자(一人者)가 된다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갖춘 것이며 이러한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바둑의 고수로 정운창이 이름이 나자 다투어 그를 초대하고, 서울의 재상까지 그를 불러 바둑의 신묘한 수를 보고자 하나, 오히려 운창이 여유롭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재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는 이옥의 신분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 있는 인간을 긍정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신아전>에서도 역시 신분이나 지위보다 사람됨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의 본명은 탄재(炭齋)로 청도에 사는 벙어리 칼 대장장이다. 칼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감식력 또한 풍부하고 고집이 남달랐다.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라도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관에 있는 자가 주문을 해도 상투를 자르면서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 수화로 의사소통을 했던 아전에 대해서는 각별하였다. 물심양면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었던 그가 죽

119) 역주 이옥전집 권2. p.238.

자 애통한 나머지 삼일을 개처럼 부르짖다가 결국엔 병에 들어 죽을 정도였다.

의로움과 믿음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봉건 윤리를 강조한 듯하나, 실질적 내용에서는 인간성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120]

이러한 의식은 탄재가 군수의 구슬갓끈을 감식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감식 능력에 의문을 품자, 탄재는 과감히 사또의 갓끈을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사또는 성을 내기는커녕, 즉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인정하기 시작하는 풍조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은 탄재를 통해 사람이 지닌 내면으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고 외형적 면으로만 평가하는 시대적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담대함과 용기로 의를 위해 싸울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신분이나 육체적인 결함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사람됨에 있음을 탄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안민전>과 <안황중전>은 당대 봉건사회제도 하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하여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도 그것을 꽃 피울 수 없었던 불우한 인재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저해하는 봉건적 신분제도를 비판한 작품들이다.[121] 더불어 유학을 하는 사계층이 아니면 인간성마저 천시하던 사회 세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인물들을 입전하여, 서민의 삶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능력이나 사람됨에 기인하는 인간 존중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는 전통적 농경 사회로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기가 일찍부터 발명,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과학기기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일찍부터 인식되긴 하였지만 유학자들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기술을 천시하였다.

<이안민전>은 승상의 아들이면서도 기존의 기술천시 풍조에서 벗어나 과학기기의 제작에 힘을 쏟은 이민철을 입전한 것이다. 이민철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다. 아홉 살 때, 중국 사람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자명종(自鳴鐘)을 조용한 곳에 가

120) 김상렬, 앞의 논문, 1986. p.71.
121) 오희복 역, 앞의 책, 1990. p.39.

지고 가서 분해하여 보고 다시 제대로 맞춰 놓았으며, 후에 이를 본 따서 참대못을 깎고 두꺼운 유지(油紙)를 써서 시계를 만들었다. 그 후 물리학(物理學), 천문학(天文學), 음양학(陰陽學) 등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여러 가지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아주 정교하였다. 그는 광해주 때 창경궁(昌慶宮) 서쪽에 건립한 흠경각(欽敬閣) 내부에 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시계를 만들어 놓았고, 현종 때는 관상감(觀象監)에 우주 모형을 만들어 설치하였는데 이도 역시, 물의 원리를 이용하여 궤도에 따라 해와 달 모형이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기기 제작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작가의 해박한 과학지식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안민은 현종 숙종 조에 고제(古制)를 복구하여 여러 과학기기를 만든 공로로 벼슬까지 제수(除授) 받고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그 역시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과 과학을 천시하는 풍조로 인하여 한계를 느끼고 아쉬움을 탄식하는 여운을 남겨 사회적 제약 때문에 세상에 쓰이지 못한 인재가 많음을 시가해 주고 있다.

이는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통 유학자들의 기술천시 풍조에 대한 개탄이다. 또한 김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민과 같은 인물도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나 그 재주를 미처 다 못쓰고 죽었는데, 하물며 촌(村)에 있는 사람이 오죽하겠냐는 말로, 당시 현실에서 진정으로 재주와 능력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인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재주를 쓴 사람이라는 역설 속에 서얼차별의 모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김려는 과학기술을 경시하던 풍조와 서얼차별의 모순점을 비판함으로써 인간성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을 신분적 요소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안황중전>의 주인공 안찬은 자를 '황중'이라 하며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 그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마을에 차고 문길이 막힐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명성을 널리 떨침에 동류업자들의 시기도 높아져 결국에는 중종 때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하여 무고하게 체포되어 형장 백 개를 맞고 나오다가 도중에 정서 역에서 죽고 말았다.

김려는 평론부(評論附)에 "아아 기묘년의 화(禍)는 참혹하였다. 그때 양반들이 집에 들어 앉아 있다가 끌려가서 살육(殺戮)된 자가 몇 백에 달하였다. 비록 의사나

수공업자나 기술로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자기 양심을 지키려는 자도 역시 이를 면치 못하였으니 슬픈 일이다."[122] 라는 말로, 모든 선진적인 것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시대의 사회 현실과 반인민적인 봉건통치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근절시키려는 위정자들의 빗나간 의식을 꼬집고 있다.

또한 난세에 자신의 뜻을 굽혀 벼슬을 하지 않고 지내는 피장(皮匠)[123]의 현명함을 언급함으로써 안찬의 행적과 대조시켜 난세에서의 처세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후기 '전'작품에서 시정인이 등장한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 계층의 등차적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시정인들 스스로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싹텄고, 당시 문사들도 이들 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전 인물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는 즉, 타인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학습자 자신의 정체감과 자아를 돌아보고 형성하는 방법 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에 대해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올바른 전문인 의식을 정립하여 현장에 나아가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을 획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개성을 실현하여 스스로의 잠재된 가능성에 대하여 의식하고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 행위를 이끌어 낼 것이다. 자아실현은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이는 일순간 비약적인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형성해가는 과정 위에 있는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직업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옥·김려의 '전'에 입전 된 다양한 전문인들의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에게 동일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의해 평가하고 그것에 의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2) 오희복 역, 앞의 책, 1990. pp. 275~276.
123) 피장(皮匠): 가죽을 이기거나 이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Ⅴ. 결론

고전소설은 고전 문학 가운데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품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이다. 또, 당대 인간의 삶을 구체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로서 한 시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공감을 자아냄으로써 문학의 보편성에 기여하고 있다. 고전소설은 선인들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에 적절한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소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학 교과서에서 고전소설 작품을 수록함에 있어 소수의 작가, 특히 박지원에 편중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소설 특유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서사문학의 전통을 일깨워 줌으로써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고방식 및 미적감수성과 더불어 문학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고전소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적 상황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키고 그로써 시대를 바라보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형성하기 위한 보완으로 이옥·김려의 '전'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제Ⅱ장에서 조선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문학 작품을 통해 교수-학습하는데 있어서 고전소설의 장르 중 '전'이 갖는 장르적 탁월성으로 개방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전'문학이 개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입전 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사회상의 반영, 폭넓은 안목이라는 특징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의 학습이 목적인 고전 문학 교육 자료로써 여느 장르에 비해 탁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옥·김려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명하고 생애와 주요 사건을 살펴 반영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현행 '전'문학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확충하기 위한 교육적 입지를 확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과서의 고전소설 수록 양상과 각 교과서별 단원 설정 현황과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현행 고전소설 교육에서 박지원이라는 한 작가에 편중된 작품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을 재인식과 현행 교육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학습자 경험의 다양화를 통한 내면화 방안으로 조선후기

고전소설사에서 독특한 면모를 인정받은 이옥·김려의 '전'과 교과서에 수록된 박지원 '전'을 비교 검토하여 그 계승·발전 관계를 규명하고, 두 그룹의 상이점을 통해 이옥·김려 작품의 교과서 수록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밝혀 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이옥·김려 두 작가의 '전'작품을 통해서 먼저 입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조선후기 '전'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입전 대상이 유가적 가치를 가진 사대부층 인물들에서 시정의 인물들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박지원 작품에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시정 인물을 입전하는 입전 의식에서 이옥·김려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박지원은 사대부의 부패와 폐단에 대한 항거와 일침으로 비천한 시정 인물들의 품행이 오히려 더 윤리적임을 역설하여 반성의 거울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옥·김려는 시정의 공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의 인물들의 삶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애정을 두고 입전하였다. 이러한 입전 의식의 차이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삶의 모습과 세계관의 추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이 보이는 인간적 본질이나 심리적 갈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갖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실문제에 대한 두 그룹의 관점을 통해 세계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공시적 안목이 함양될 수 있다. 연암의 작품들은 조선후기의 변화된 역사 환경 속에서 이전과 다른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비판성이 드러남에도 '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즉, 모든 비판과 풍자의 시각이 자신과 같은 계급인 사대부들에게 고정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의 영향력이 시정의 삶에까지 크게 미쳤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이옥은 <성진사전>, <장봉사전>을 통해 세태의 각박함과 어지러운 사회상을 고발하고, <류광억전>과 <이홍전>으로는 도덕적 타락상과 집권층의 낭비 양상을, <심생전>에서는 신분적 갈등을 통한 계급사회의 모순을 나타냈다. 또한 김려는 마른 고기를 팔며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주인공을 <가수재전>으로 입전시켜 경제적 변동을 반영한 계급 분화의 모습을, <류구왕세자외전>에서 류구국 세자와 제주 목사 이란과의 일화를 통해 정권을 잡은 집권층의 악질적 행위와 폐해의 심각성을 그리고, 진정한 명분과 의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타를 <포수이사룡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위의 작품들을 통해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

로 학습자 스스로가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가치를 균형감 있고 온전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들을 입전 시킨 작품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정립시키고 학습자의 자아실현으로서 직업과 소명에 대한 자아실현을 고양시킬 수 있다. 연암은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에서 일반 서민들의 진실한 가치를 발견하고 개체로서의 존중을 주장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시정의 입전 인물을 계기로 양반계층을 질타하였다. 그에 반해, 이옥·김려는 득음의 경지에 올라 사대부층과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던 가객 송실솔, 겸손의 미덕을 몸소 보인 바둑의 고수 정운창, 신분이나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의와 능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검공 탄재, 시대를 앞서는 안목으로 실제적인 학문에 힘쓴 이민철, 뛰어난 재능이 시대의 시기를 부른 안찬과 같은 인물들을 입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존재 가치를 재능과 인간성에 기초하여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통해 나타난 전문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학습자가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해 건전한 자아실현의 표본으로 삼아 사회에서의 직업인으로서 전문의식이 갖는 의의를 알고 나아가 삶에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행위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고전소설 교육의 목표를 한국서사문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고전소설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문학능력의 신장으로 보고 조선후기 사회상과 시대적 작가의식을 교수-학습 하는데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기위한 확충으로 이옥·김려의 '전'작품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 보았다.

고전소설 교육 자료의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에서의 '알맞은 읽기 자료'로써, 학습자에게 이해되는 글, 공감되는 글, 감동받는 글, 변화시키는 글이 좋은 자료이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고전소설 작품을 학습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감각에 적합한 경험을 하고, 단절이 아닌 흐름으로의 전통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삶의 지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문헌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교육부,『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교육부,『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국어(상/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교육부,「고등학교 국어(상,하)」, 2002.

강황구 외 4,「문학(상, 하)」,상문연구사, 2002.

구인환 외 5,「문학(상, 하)」, 교학사, 2002.

권영민,「문학(상, 하)」, (주)지학사, 2002.

김대행 외 2,「문학(상, 하)」, (주)교학사, 2002.

김병국 외 4,「문학(상, 하)」, (주)한국교육미디어, 2002.

김상태 외 5,「문학(상, 하)」, 도서출판 태성, 2002.

김윤식 외 4,「문학(상, 하)」, 도서출판 디딤돌, 2002.

김창원 외 3,「문학(상, 하)」, 민중서림, 2002.

박갑수 외 4),「문학(상, 하)」, 지학사, 2002.

박경신 외 3,「문학(상, 하)」, (주)금성출판사, 2002.

박호영 외 1,「문학(상, 하)」, 형설출판사, 2002.

오세영 외 7,「문학(상, 하)」, (주)대한교과서, 2002.

우한용 외 5,「문학(상, 하)」, (주)두산, 2002.

조남현 외 4,「문학(상, 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최옹외 외 3,「문학(상, 하)」, 청문각, 2002.

한계전 외 4,「문학(상, 하)」, (주)블랙박스, 2002.

한철우 외 7,「문학(상, 하)」, (주)문원각, 2002.

홍신선 외 2,「문학(상, 하)」, (주)천재교육, 2002.

2. 저서

강만길,『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구인환 외,『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김균태,『한국고전소설론』「전문학」, 새문사, 1990.
문홍구,『한국고전산문교육론』, 보고사, 1999.
박종채,『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박희병 옮김, 1998.
서유경,『고전소설교육탐구』, 박이정, 2002.
성현경,『한국옛소설론』,새문사, 1998.
안대희,『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오희복 역,『김려작품집』조선고전문학선집 47, 문예출판사, 1990.
우한용 외,『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이가원,『이조한문소설선』, 서울: 민중서관, 1961.
이상익 외,『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이옥 저,『역주 이옥전집』1~3권, 소명출판, 2001.
이혜순,『한국문학강의』, 서울: 길벗, 1994.
허왕욱,『고전문학 교육론』, 보고사, 2003.

3. 논문

강명관,「담정 김려 연구(1)」,부산대학교 사대논문9집, 1984.
권성임,「고등학교 국어과 한문단편 교육 연구」,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권순긍,「이옥 '전'의 시정세태 묘사와 풍자」,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2004.
김경미,「담정시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5.
김경희,「연암 박지원 문학의 교육방안 연구-한문소설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05.
김광은,「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균태,「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김동판,「이옥의 '전'문학 연구」, 계명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상렬,「이옥의 '전' 문학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6.
김영진,「이옥 연구1 -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제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민경대,「이옥의 '전'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991.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단원체제 연구」, 청어문학, 2004.
박정경,「이옥의 '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준원,「조선후기 '전'의 사실수용양상 -연암·문무자·담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1989.
박혜숙,「사유악부연구」, 고전문학연구6집, 1991.
박훈기,「이옥의 '심생전'연구」성균관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3.
배한렬,「이옥의 '전'에 대한 연구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영남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백녹희,「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단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송병렬,「이옥의 의인체 산문 일고찰」, 한문학보 제13집, 2005.
신보영,「고등학교 고소설 교육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승만,「고전문학 교육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원식,「조선후기 한문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실학파를 중심으로-」,단국대 석사학위, 1998.
이경수,「김려의 생애와 《단량패사》의 문학적 성격」,국어국문학92호, 1984.
이미진,「고전소설 수록 양상의 적정성 분석과 바람직한 교재화 방안」, 연세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상덕,「이옥 '전'의 양식적 변개양상에 관한 소고」,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성휘,「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품의식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2.
이수영,「고전문학 교육의 방향과 교과서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신라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신복,「담정 김려 한시 연구」,단국대 동양학18집, 1988.
이지선,「연암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유경,「이옥의 <차최이의사전>의 구성과 문체상의 특징」, 한국전통문화연구 12, 대교효성가톨릭대학교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7.
임종대,「담정 김려 연구」,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장성란,「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7.
정병호,「<심생전>의 서술방식과 의미지향」, 문화전통논집1, 경성대부설향토문화연구소, 1993.
「김려의 '전'연구」,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8.
조영식,「담정 김려의 사상과 작가의식」,안동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한문교육), 1991.
「담정 김려의 시세계 -그 생애역정에 따른 시경향-」,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조장희,「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고소설 제재에 관한 연구」, 서강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허종진,「이옥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수용 연구」, 부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려의 '전'연구」,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8.
허준구,「김려의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연구」,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2.
「담정 김려의 사유악부 연구(1)」,죽부이지형교수정년퇴임직기념논문집, 1996.
「《단량패사》의 야사적 성격과 그 의미」,태동고전연구14집, 1997.
「<한고관외사제후> 분석을 통해본 김려의 야사적 편찬과 인식」,강원대사범대학 국어국문학논총, 1997.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58016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김 은 선 한문: 金 恩 璇 영문: Kim, Eun Sun				
주소	광주 동구 산수 1동 541-58 번지				
연락처	062 - 523 - 1756 E-MAIL: qufgk37@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전(傳)'문학의 교육 방향과 교육적 가치 - 이옥・김려의 '전(傳)'을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Educational Directions and Values of 'Jeon' Literature - Centering on 'Jeon' by Lee Ok and Kim Ryeo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2 월 일

저작자: 김 은 선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